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도 에코 뮤지엄 테마별 특징 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eculiarities by themes and planning programs of eco museum in Jeju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미술관 · 박물관학 전공

민 주 희

2011

제주도 에코 뮤지엄 테마별 특징 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eculiarities by themes and planning programs of eco museum in Jeju

지도교수 조 경 호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1월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미술관 · 박물관학 전공

민 주 희

2011

민주회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11년 1월

심사위원장 최 진 식 (인)

심 사 위 원 조 경 호 (인)

심 사 위 원 백 지 원 (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문 초록

제주는 화산으로 형성 된 지질대의 특성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왔다는 생활사를 바탕으로 돌 문화와 해녀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독특한 자문화가 형성된 곳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등록과 세계 지질공원, UNESCO지정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그 청정 자연의 이미지가 국제적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박물관은 관광자원 중에서도 유형상 문화 관광 자원에 속하며 1990년대 이후 종래의 낡은 대량관광이 문화와 관광의 개념을 통합하고, 관람자의 참여가 주체가 되는 대안관광의 한 범주로서 문화관광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제주는 2011년 기준 등록 박물관이 44개에 달하는 가히 박물관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독특한 자연문화 유산과 청정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제주의 박물관은 현대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에코 뮤지엄'으로서 크나큰 성장 잠재력을 지녔다. 1960년대 프랑스에서 지역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자연공원의 문화시책인 에코 뮤지엄은 자연환경 뿐 만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산업자원과 지역주민, 마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유산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지속 가능하도록 보전하면서도 경제적 소득 증대도 이룰 수 있는 박물관 산업의 미래이다. 이에 박물관 개념의 탄생지인 프랑스의 테마별 에코 뮤지엄과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도 독보적인 형성과정과 특징으로 에코 뮤지엄 발전에 모태가 되어준 이탈리아 에코 뮤지엄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러한 개념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 된 국내 사례를 연구해 보았다. 최종적으로 제주의 대표적 에코 뮤지엄인 '돌 문화공원'과 '해녀 박물관'의 사례를 살펴보고 선행 된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을 마련해 보았다. 제주의 에코 뮤지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 자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문화 메신저로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자문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의 후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제주지역 내 산업기관과의 네트워킹을 도입하여 에코 뮤지엄을 비롯한 마을 전체가 경제적으로 함께 공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제주의 에코뮤지엄이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로서 관광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 2

Ⅱ. 에코 뮤지엄 개념 ····· 3
1. 에코 뮤지엄 정의와 특징 ····· 3
2. 에코 뮤지엄 활동 ····· 6
3. 프랑스 에코 뮤지엄 탄생 ····· 8
1) 탄생 과정 ····· 10
2) 에코 뮤지엄의 분류 ····· 13
3) 에코 뮤지엄의 확산 ····· 16

Ⅲ. 제주도의 에코 뮤지엄 현황 ····· 19
1. 제주도 자연문화유산 ····· 19
1) 제주 돌의 가치 ····· 19
2) 화산섬의 독특한 주거공간 ····· 19
3) 해녀문화 ····· 20
4) 전통 갈옷 ····· 20
5) 제주어 ····· 23
6)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 23
2. 제주도 박물관의 변화 ····· 24
1) 제주도 박물관 현황 ····· 24
2)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제주 에코 뮤지엄 ····· 27

3) 에코 뮤지엄을 통한 지역관광개발 ····· 28

Ⅳ. 해외 대표 사례 분석 ····· 32

1. 유럽의 에코 뮤지엄 형성 배경 ····· 32

2. 프랑스의 에코 뮤지엄 ····· 35

1) 전형적인 에코 뮤지엄 ····· 35

2) 국립공원 안에 있는 에코 뮤지엄 ····· 37

3) 도립공원 내의 에코 뮤지엄 ····· 38

4) 자치 주도형 에코 뮤지엄 ····· 39

5) 지역 진흥을 의식한 에코 뮤지엄 ····· 40

6) 도시형 에코 뮤지엄 ····· 40

7) 농업 유산 활용형 에코 뮤지엄 ····· 41

8) 대학이 주도하는 에코 뮤지엄 ····· 42

9) 재단이 주도하는 에코 뮤지엄 ····· 43

3. 프랑스 에코 뮤지엄 평가 ····· 43

1) 에코 뮤지엄의 관광 자원성 ····· 43

2) 에코 뮤지엄의 환경 문화 창조 ····· 44

3) 에코 뮤지엄의 지역공헌 ····· 44

4. 이탈리아의 에코 뮤지엄 ····· 45

1) 이탈리아의 에코 뮤지엄 테마 별 사례 ····· 45

2) 이탈리아의 에코 뮤지엄 특징 ····· 49

Ⅴ. 제주도 에코 뮤지엄 사례 분석 현황 ····· 51

1. 돌 문화공원 ····· 51

1) 시설 내역 ····· 51

2) 전시 내용 ····· 55

3) 관람객 현황 ····· 57
4) 홍 보 ····· 59
5) 자료수집 내역 ····· 59
6) 조사 연구 ····· 60
7) 사회·문화 교육 ····· 63
8) 제주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돌 문화공원 ····· 65
2. 해녀 박물관 ····· 69
1) 시설 및 전시내역 ····· 69
2) 관람객 현황 ····· 72
3) 홍보 ····· 73
4) 자료 수집 내역 ····· 73
5) 개발 계획 및 전망 ····· 76
6) 제주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해녀 박물관 ····· 77
3. 문제점 ····· 78
1) 돌 문화공원 ····· 78
2) 해녀 박물관 ····· 79

Ⅵ. 제주지역 에코 뮤지엄 발전 방안 제시 ····· 82
1. 프랑스의 에코 뮤지엄 개념을 도입한 국내 선행사례 82
1) 아름마을가꾸기사업 ····· 82
2) 그린 투어리즘 ····· 87
3) 사례 평가 ····· 89
4) 지역 전체로서의 에코 뮤지엄 성공 요건 ····· 89
2. 제주지역 에코 뮤지엄 발전 방안 제시 ····· 92
1) 주민 참여 연계 ····· 92
2) 지자체와의 연계 ····· 94

3) 제주지역 산업과의 연계 ····· 95
4) 축제와의 연계 ····· 96
5) 공동 브랜드 네트워크 마케팅의 도입 ····· 97
3. 제주지역 에코 뮤지엄 구상 ····· 98
1) 제주 어린이 향토 문화 스테이 ····· 98
2) 제주 축제 발전 방안 ····· 101

Ⅶ. 결론 및 시사점 ····· 105

표 차 례

<표1>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 뮤지엄의 비교 ····· 4
<표2> 전국 시・도 별 박물관・미술관 현황 ····· 25
<표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박물관 리스트 ····· 26
<표4> 감귤 박물관 관람객의 추가 체험 욕구 ····· 29
<표5> 해녀 박물관 관람객의 추가 체험 욕구 ····· 29
<표6> 감귤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 인식하는 정도의 변화 ····· 31
<표7> 해녀가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인식하는 정도의 변화 ····· 31
<표8> 돌 문화 공원 시설 현황표 ····· 51
<표9> 제주형성전시관 구성 ····· 53
<표10> 돌문화 공원 전시관 각 동별 전시물 ····· 53
<표11> 야외 전시장 전시물 ····· 54
<표12> 전통 초가 전시장 ····· 54
<표13> 제 2 코스 전시장과 내용 ····· 56
<표14> 2008 관람객 현황 ····· 58
<표15> 2008 주요 내방객 현황 ····· 58
<표16> 년도 별 조사연구 추진 및 연구 성과 ····· 61
<표17> 년도 별 사회교육 개최 내역 ····· 63
<표18> 지질 사이트 답사 내용 ····· 65
<표19> 소장자료 년도 별 수집 내역 ····· 74
<표20> 년도 별 유·무상 기증 수집품 구입 내역 ····· 74
<표21> 해녀 박물관 자료 15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 10호 지정 내역 ····· 75
<표22>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대상마을 현황 ····· 83
<표23> 그린투어리즘 사업내용 ····· 87
<표24> 그린투어리즘 마을 성공 사례 ····· 91
<표25> 제주 어린이 향토 문화 스테이 프로그램 ····· 99
<표26> 제주 스테핑 스톤 페스티발 프로그램 ····· 103

그 림 차 례

<그림1> 에코 뮤지엄 개념 ---6
<그림2> 종래 박물관과 에코 뮤지엄 ---7
<그림3> 에코 뮤지엄의 순환적 발전 룰렛 ---7
<그림4> 평화 박물관 알뜨르 비행장 전망 ---28
<그림5> Prail Eco-museum ---46
<그림6> 이탈리아 에코 뮤지엄의 구성요소와 재정의 ---49
<그림7> 제 1코스 ---51
<그림8> 제 2코스 ---52
<그림9> 제 3코스 ---52
<그림10> 제 1 전시실 - 해녀의 삶 ---69
<그림11> 제 2 전시실 - 해녀의 일터 ---69
<그림12> 제 3 전시실 - 바다 ---70
<그림13> 어린이 해녀 체험관 ---70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인증,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2011년 유네스코 지정 7대 자연경관으로 선택 되며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인정받고 이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개발해 나아가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도약 해 나아가고 있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을 통해 형성된 지질학적 특성과 육지부와 분리 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특색 있는 자문화가 형성 된 곳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컨텐츠가 개발 되고 있다. 제주의 문화 관광 요소 중 하나로 현재 그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 인 박물관을 들 수 있으며, 제주도 박물관 협회에 등록 되어 있는 박물관 수만 38개로 제주는 박물관 천국이란 헤드라인을 걸고 관광 홍보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다. 종래의 낡은 관광산업이 점차 대안을 찾아가면서 전통적 의미의 수집과 전시, 교육에만 국한되던 박물관 또한 그 변화와 더불어 기능적으로 진화 하고 있다.

화산활동을 통해 형성된 현무암을 비롯한 화산석, 사방이 바다로 둘러쌓인 환경을 통해 옛부터 해안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오면서 물질하는 해녀들이 일구어 낸 민속환경과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 자연환경이 그대로 자연·인문 박물관인 제주도의 지역색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에코 뮤지엄을 꼽을 수 있다. 에코 뮤지엄은 실내에서 벗어나 개방된 공간 속에서 관람객 스스로가 자유롭게 관람 동선을 창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관람객이 박물관의 일부이며 전시 기획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박물관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관람객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며, 관람객을 소비주체가 아닌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담당하는 주체, 즉 생비자로 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에코 뮤지엄 사례를 통해 관광자원의 동력으로서 에코 뮤지엄이 갖는 의미와 역할, 강점 및 제주도의 에코 뮤지엄이 발전 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시사 해 본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제주도 내에 분포 된 박물관 카테고리 내에서 에코 뮤지엄의 범주에 드는 박물관 두 곳(돌 문화공원, 해녀 박물관)을 선정하여 운영 사례를 분석 해 본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에 초점을 둔다. 문헌연구를 통해 에코뮤지엄과 제주 관광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에코 뮤지엄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 뮤지엄의 실태를 파악 해 본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 박물관과 관련된 단행본, 간행물 및 행정자료, 학위 논문, 유사 연구 단행본, 학술지, 논문, 관련 매체의 기사, 기관 홈페이지 및 사례 박물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헌 자료를 수집 하였다.

KMU

Ⅱ. 에코 뮤지엄 개념

1. 에코 뮤지엄 정의와 특징

에코뮤지엄이란 용어가 탄생하고 실제로 활용된 최초의 국가는 프랑스였다. 프랑스 유명 박물관학자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 1897~1985)는 '스칸센민속원(Skansen)'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야외 박물관(Open air museum) 개념을 프랑스 실정에 맞게 변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891년 설립된 세계최초의 야외민속박물관인 스칸센 민속원이 스웨덴에 산재해 있던 150여 채의 전통가옥들을 일정 지역에 인위적으로 옮겨왔던 것과는 달리 전통가옥 대부분이 원래 있던 자리에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프랑스에서는 지역의 생태환경과 풍속까지 박물관 내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에코 뮤지엄들은 1971년과 1974년 사이 국제 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박물관학자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의 주도하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유적지들을 보호하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복구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냈다. 지자체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주민들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관리의 주체가 되었고 이는 지역 관광산업 및 소득과도 연결되었다.

생태학과 지역민속학 그리고 지역경제발전 모두를 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에코뮤지엄은 현재 프랑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가능성과 효과를 인정받아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총 300여개의 규모가 큰 에코뮤지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200여개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동 하외마을, 북촌 한옥마을, 외암리 민속마을, 영주 선비촌 등이 프랑스의 에코뮤지엄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연 환경 그대로를 즐기고 이해하려는 에코투어리즘(생태관광, Eco-tourism)과 연계하여 만들어진 충남 논산, 여주 등 전국 각지의 그린투어 프로그램도 에코뮤지엄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위그드 바린과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는 박물관과 에코 뮤지엄을 건물

(building) vs 영역(teritory), 소장품(collection) vs 유산(heritage), 대중(public) vs 지역주민(population)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차이점을 구분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코 뮤지엄은 관람객이라는 대중을 위한 건물 또는 소장품으로 특정 지역의 지역 공동체로 확인되는 문화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에코 뮤지엄과 기존의 박물관과의 또 다른 차별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형' 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박물관은 폐쇄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전시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구성된 전시관람 동선에 따라 관람하는데 반해, 에코 뮤지엄은 개방된 공간 속에서 관람객 스스로가 자유롭게 관람 동선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람객이 박물관의 일부이며 전시기획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박물관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관람객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며, 관람객을 소비주체가 아닌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 즉 생비자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1.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 뮤지엄의 비교[1)]

	전통적 박물관	에코 뮤지엄
전시 유물	소장품	유산
전시 장소	건물	장소
전시 대상	관람객	지역주민

에코 뮤지엄 이념에서 우선 중요한 특징은 어느 특정의 '영역'='지역'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 특징에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사회·주민과의 일체화를 위한 '수단적 특징', 즉 '주민의 주체적 참가'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내의 각종 유산의 보전을 위한 '형태적 특징', 즉 '유산의 현지보전'이다. '영역'이라는 기본 개념 아래에 양자를 겸비하고 통합화한 존재가 에코 뮤지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2)]

1) 드 바린(De varine)이 정의한 전통적인 박물관과 에코 뮤지엄의 차이점

• H(heritage):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산업유산 등을 현지 보존 하는 것
• P(participation): 주민의 미래를 위해서 주민 자신의 참가에 의한 관리 운영
• M(museum): 박물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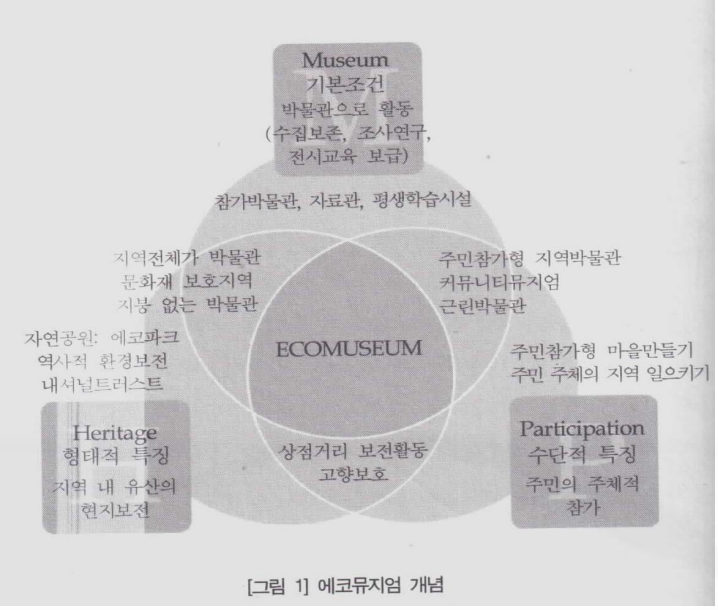
위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이 잘 맞고, 일체적으로 밀접한 네트워크가 짜여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예를 들면, H(유산보전)와 P(주민참여)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각지에서 마을의 땅과 마을의 산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 있거나 역사적인 마을모습을 주민들이 보전하려는 운동 등이 있다. 이 지역들에서 박물관학으로서의 활동이 더해지면 에코 뮤지엄이 될 수 있다.

또한 P(주민참여)와 M(박물관활동)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지역주민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한 박물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참가에 의한 조사, 전시 등을 시도하고 있는 박물관의 실제 사례가 있다. 이 활동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 등의 현지보전활동과 결합하면 에코 뮤지엄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M(박물관활동)과 H(유산보전)의 교차 부분에는 지역에 점재하는 작은 역사유산이나 공장, 박물관 등의 네트워크를 짜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미 에코 뮤지엄의 전형적인 형태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각각 점재하는 사이트를 주민참가에 의해서 운영하고 관리해 가면 된다.

2) H. 드 바린이 제창했던 세 가지 요소에 R.리비에르가 각각의 세 번째 요소를 더해서 정의한 것이다.



[그림 1] 에코 뮤지엄 개념[3)]

2. 에코 뮤지엄 활동

종래의 일반적인 박물관과 에코 뮤지엄의 활동을 비교해 보겠다. 박물관 활동의 세 가지 요소, 즉 ①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용기·구조(스케일), ②활동 대상·내용, ③그것에 관련된 인간·박물관 활동 주체와 객체에 대한 각각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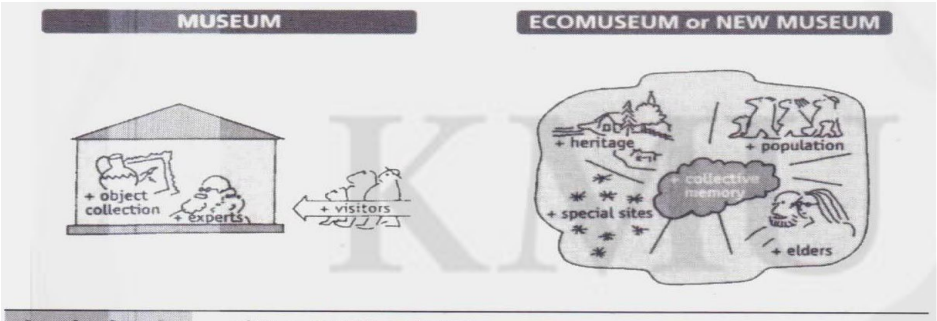
	[장소]	+	[내용·대상]	+	[사람]
종래형 박물관 =	[건물]	+	[수집품]	+	[전문가+공중]
에코 뮤지엄 =	[영역]	+	[유산+기억]	+	[주민]

즉, 종래형처럼 박물관 건물 내에 어느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어떤 지역의 일정한 영역에 점재하는 [유산] 이나 무형의 [기억] 을 대상으로 한다. 종래형 박물관에서는 [전문가] 와 [공중] 의 양자가 맡았던 역할을

3) 오하라 가즈오키(일본 에코 뮤지엄 연구회 설립, 이사·사무국장)가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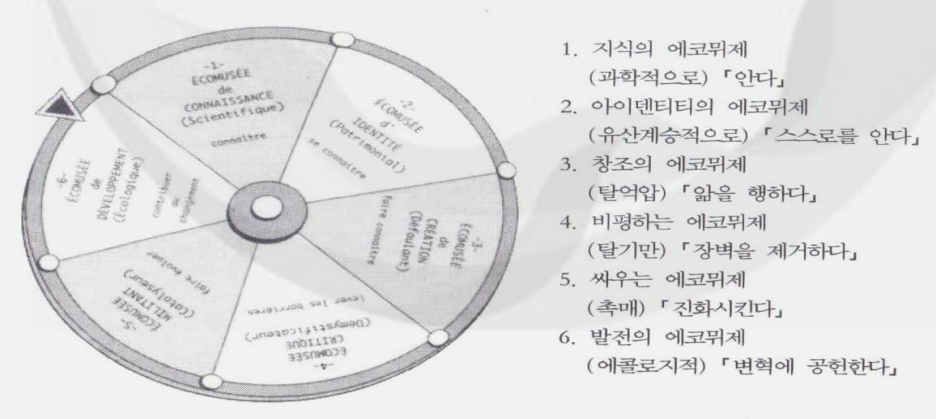
에코 뮤지엄에 서는 지역 ［주민］이 맡는 것이다.

에코 뮤지엄은 에콜로지의 박물관(에콜로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과학관이나 자연사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에코 뮤지엄은 미술관=미술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자연지(自然誌) 박물관, 역사 박물관 등의 박물관 카테고리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또한 생태학 박물관(생태공원 등 그 자체가 생태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보존 대상이 된 것, 자연 또는 문화 보호지역에서 외부 방문자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어느 쪽도 다른 것으로써 설명된다. 이 두 개는 에코 뮤지엄에 포함되어, 그 일부를 이룰 수는 있어도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에코 뮤지엄 활동의 특징은 지역 환경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매우 통합적, 학제적이며, 거기에 추가하여 지역주민이 에코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박물관 활동 속에 편입된다는 점에 있다.



기존형 박물관	=	건물＋수집품＋전문가
에코뮤지엄	=	영역＋유산＋지역특성＋연장자＋지역주민＋기업수집

［그림 2］ 종래 박물관과 에코 뮤지엄 (R. Rivard, 1984)



［그림 3］ 에코 뮤지엄의 순환적 발전 룰렛 (P. Mayland, 1994)

[그림3]에서는 에코 뮤지엄이 운동론적으로 파악되어 동적인 운동을 반복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에코 뮤지엄을 알아감으로써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야 말로 중요하다고 한다.[4] 이러한 점에서도 에코 뮤지엄은 과거의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미래의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살아있는 박물관 이라고 할 수 있다.

3. 프랑스 에코뮤지엄의 탄생

에코 뮤지엄 이념은 1960년대 말 프랑스에서 탄생 했는데,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에코뮤지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60년대 후반 프랑스는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도시화되고 한편으로는 농촌의 과소화가 가속되었다. 중앙집권정치의 부정,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문 등 급진적인 사상운동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1968년 5월에는 학생들에 의한 '이의제기', 이른바 5월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시대에는 창조와 파괴가 반복되는 가운데 장래 아이들의 희망을 위한 환경유산의 보전의식, 도시와 농촌의 균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분권에 대한 지지와 기대의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져 갔다. 그리고 지방분권화 정책 시도 중 하나로 1967년에 성립된 지방자연공원법에 의한 지방자연공원의 정비화 일체적으로 에코 뮤지엄이 전개 되었다고 한다. 그 정비에는 공원 내의 역사적 건조물 등의 보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에코 뮤지엄은 처음에는 반 중앙집권·지방분권·지역주의 입장에 설 것, 다음으로 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중시할 것의 혁신적인 이상을 가지고 전개한 것이며, 그 발상은 박물관학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방자연공원의 법적 정비의 기회를 얻어서 실현해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30년대에 파리 인류 박물관 관장이었던 폴 리베를 중심으로 프랑스 민

4) 캐나다의 에코 뮤지엄 학자 P. 메이랜드(Pierre Mayland) 정의.

중문화재생운동이 일어났는데, 리비에르(초대 ICOM 설립자이자 에코 뮤지엄 개념 제창자)는 이 그룹의 일원 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리비에르는 사회는 건축물에 의해서 여실히 표현된다고 여겨 프랑스 건축유산에 대한 보존 필요성을 통감했다.

이러한 인식은 북유럽 야외박물관, 특히 스칸센 야외 박물관을 통해 더욱 강화 되었다. 스칸센 야외 박물관은 건축물 및 거기에 전개되는 생활 일부를 떼어내어 전시관에 넣은 '물건'으로서가 아닌 환경 전체를 구성하여 전시하고 게다가 지역전통복장을 입은 스태프들이 동적으로 생활복원을 하게 됐다. 리비에르는 후에 프랑스 민중예술박물관[5]의 설립에 힘을 다할 때, 생활을 가옥 공간 전체로 전시하는 기법을 도입했다. 또한, 이 사상은 브르타뉴, 아키텐, 사브와, 도피노와 등의 각 지방 박물관에서 이어받아 각각 전통적인 가옥 보존에 힘을 쏟게 했다.

1963년부터 국토정비정책이 시행 되어 민간기업에서는 4주간의 휴가제도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는 지방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66년 열린 루르 지방의 연구회에서 리비에르가 농촌 건축을 보전하는 몇몇 방법을 제안하고 일군의 민가를 현지에서 보전해 보자 하였다. 그렇게 해서 스칸센 야외 박물관과 같은 공원의 박물관화의 기초가 탄생 되었다.

1968년 5월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정신 고양의 시대를 겪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사회혁명 중 일원으로 에콜로지즘 및 에콜로지의 개념이 퍼지게 되었다.

1971년 제 9회 ICOM총회에서는 ICOM의 재편이 제안되어 연구와 환경보호에 대한 박물관의 역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통일 된 견해가 나왔다. 이 회의에서 많은 박물관 관계자의 발안이 있었고 H.바린이 에콜로지와 뮤지엄을 합성한 에코 뮤지엄이라는 말을 발명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72년 9월 25일~30일, 보르도에서의 ICOM심포지엄 '박물관과 환경'으로 지속 되었다.

1) 탄생 과정

5) 프랑스 민중예술 박물관은 현재 파리에 있는 국립 민중예술과 전통의 박물관에 해당한다.

가. 지방의 건축 유산 보호

1930년대에 파리 인류박물관 관장이었던 폴 리베를 중심으로 프랑스 민중문화재생운동이 일어났는데, 조르주 리비에르는 이 그룹의 일원 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리비에르는 프랑스 건축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을 통감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적 건축물에 의해서 역사와 전통이 표현된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북유럽 야외 박물관, 특히 스톡홀름 스칸센 야외 박물관을 통해 더욱 강화 되었다. 스칸센 야외 박물관은 건축물 및 거기에 전개되는 생활 일부를 떼어내어 전시관에 넣은 '물건'으로서가 아닌 환경 전체를 구성하여 전시하고, 게다가 지역전통복장을 입은 스태프들이 동적인 생활복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칸센의 이러한 전시기법은 전 세계, 특히 북아메리카에 강하게 영향을 주어 리빙히스토리무브먼트(생활사복원운동)로 전개되었다.

리비에르는 후에 프랑스 민중예술 박물관(현재 파리에 있는 '국립 민중예술과 전통의 박물관')의 설립에 힘을 다했는데, 여기에는 생활을 가옥공간 전체로 전시하는 수법을 도입했다. 이 사상은 브르타뉴, 아키텐, 사브와, 도피노와등의 각 지방박물관에서 이어받아 각각 전통적인 가옥 보존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시기에 프랑스 지방유산의 대표적인 가옥유형은 130종이 있었다고 한다. 건축물 연구는 프랑스의 여러 지방에 대한 민족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전 기회가 되고,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져서 이 자료들은 '국립 민중예술과 전통의 박물관'에 모아졌다.

나. 지방 관광과의 관계

프랑스에서는 중앙집권의 분산화를 의도하여 1963년부터 국토정비정책이 시행 되었다. 이 무렵부터 민간기업에서는 4주간의 휴가제도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방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토정비와 지방활성화 담당장관인 올리비에 기샤르를 중심으로 1966년 루르지방에서 열린 연구회에서 '지방자연공원'이라는 구상이 고안되었다. '지방자연공원'은 지방에서는 관광에 의한 활성화의 장 또는 도시에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 요구 되었다.

이 연구회에 참가하고 있던 리비에르는 농촌건축을 보존하는 몇 몇 방법을 제안하고, 그것을 이 '지방자연공원'에 적용시켜 보려고 했다. 이 때의 사고방식은 일군의 민가를 가구가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 현지에서 보전하는 것 이었다. 그렇게 해서 북유럽에 있는 야외박물관 같은 것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공원의 박물관화를 위한 구상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다. 1968년 5월

1960년대 후반은 프랑스에서 1968년에 있었던 5월혁명에서 상징되듯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정신 고양의 시대였다. 이 사회혁명운동 속에서 에콜로지즘 및 에콜로지의 개념이 1970년대에 퍼졌다. 일반적으로도 프랑스에서의 5월혁명의 사상적 영향은 매우 크며, 예컨대 에비사카는 '미셸 푸코류로 말하면' 이라는 양해를 구한 뒤에 현대 프랑스 사회의 사상이나 모든 사건은 1968년 5월 이라는 '큰 이야기'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 후반 도시 인구집중, 정신적 황폐, 아이덴티티 상실 등에 따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사상적 운동에 사로잡혀 그 큰 하나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각각의 지역 환경에 밀착하여 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

라. 지방분권화의 동향

프랑스에는 규모가 다른 약 3만 6천 개의 행정구역이 있다.

작은 것은 인구20명 정도, 큰 것은 수백만 명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행정구역은 수장과 의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작은 규모의 행정구역은 단

독으로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편성이나 합병에 의해서 자치체의 시책을 진행시켜 왔다.

특히 1960년대 말에는 행정구역 몇 몇이 모여 연합조합이나 도시공동체로 합쳐지도록 행정정책이 취해졌다. 그것에 의해서 공공교통, 도로, 쓰레기수거, 스포츠 시설, 문화·관광시설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단독 행정구역에서는 못하는 것을 광역으로 시행했다.

마. 에코 뮤지엄의 탄생

그 말을 처음 썼던 바린에 의하면, 에코 뮤지엄이라는 말은 1971년 봄, 파리 시내의 세규 거리의 레스토랑 '라 플랑베'에서 그를 포함한 세 사람이 점심식사를 할 때 생겨났다고 한다. 다른 두 사람은 개념의 고안자이며 추진자인 리비에르와 S. 앙투안(환경청 고문)이다. 리비에르는 1965년까지 ICOM의 초대 디렉터 였고, 이어 바린이 1965~74년에 역임했다.

당시 ICOM의 디렉터인 바린은 1971년 9월에 파리와 디종과 그르노블에서 열리는 ICOM 제9회 회의의 테마로 '박물관과 환경'을 채택하고 싶다고 했고, 그 운영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박물관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다음 해(1972년)의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그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박물관과 환경이라는 테마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바린은 에콜로지와 뮤지엄을 어떻게든 합성 시키려고 몇 몇 용어를 찾아본 결과, 에코 뮤지엄이라는 말을 창안 해 낸 것이었다. 앙투안은 바로 그 자리에서 환경청의 공식적인 메시지로 제창할 것을 생각해냈다. 그 결과 9월3일 디종에서의 ICOM총회 석상에서 환경장관인 로베르 푸자드에 의해 약 500명의 박물관 학자들 앞에서 이 말이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1971년의 제9회 ICOM총회에서는 소비에트연방, 독일, 베넹, 프랑스, 멕시코의 기조강연이 있었고, ICOM의 재편이 제안되어 연구와 환경보호에 대한 박물관의 역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통일된 견해가 나왔다. 이 회의에서는 많은 박물관 관계자의 발안이 있었고, 에코 뮤지엄이라는 말

이 발명되고 많은 논쟁적인 이념이 소개되었는데, 그 문제의식은 1972년 9월 25~30일, 보르도에서의 ICOM심포지엄 '박물관과 환경'으로 지속되었다.

2) 에코 뮤지엄의 분류

가. 성립기반에 의한 3세대

위베르는 성립시기, 목적, 그 설립 모체에 따라서 3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제 1 세대

에코 뮤지엄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기 이전부터 시도를 포함하여 1960년대 후반 '지방자연공원'과 함께 탄생하여 설립된 유형이다. 1967년에 제도가 만들어진 께쌍 섬의 실례를 만들어 냈다. 자연환경에 더해, 사회적 관습 등을 포함해서 학제적으로 전개하는 야외 박물관 스타일이 그 기반이 되었다 리비에르가 당초 상정했던 스칸센 야외 박물관에서의 활동, 즉 전문화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환경이나 생활이라는 종합화된 전체상을 전시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지만 단순한 공원환경을 넘은 생태적으로 전체성을 가진 박물관이다. 이 최초의 시도가 께쌍 섬 에코 뮤지엄이다.

② 제 2 세대

지방자연공원에서의 데이터가 기초가 되어 1970년대 전반에 실현된 도시지방자치정부의 설립, 작용에 의한 것, 특히 도시에서 산업유산 등 사회환경을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자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전개하는 것이다. 쇠퇴하는 도시의 커뮤니티 기반을 재생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근접한 행정구역이 공동하여 활동을 일으킨 크뢰조 몽소 레민 도시 행정구역 공동체에 의한 에코 뮤지엄이 그 최초의 사례이다.

③ 제 3 세대

이전 세대가 일정한 규모를 가진 공공의 모체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소규모의 자발적인 참여나 그 연합체에 의해 설립운영된 것으로 1970년대 후반, 특히 1977년 이후에 많이 생겼다. 지방도시의 산업·문화·생활에 관련된 여러 기억을 수집·보전하여 중핵이 되는 박물관을 가진 푸르미 트렐롱 에코 뮤지엄등이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참여는 1901년의 참여방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설치·운영방법의 가능성이 고안된 1970년대 후반에는 비교적 호경기였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수많은 에코 뮤지엄이 탄생했다. 이 결과 1977년 이후에 대량으로 '작은 에코 뮤지엄'이 생겼다.

이에는 '작은 국가주의자'의 환상이 편승하기 쉽고, 그 지역의 독자적 가치나 우수성을 절찬하는 보수적 지역주의자들의 운동인 '작은 홈랜드'만들기에 시종 해 버리는 것 등 에코 뮤지엄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에코 뮤지엄의 본래 정신과는 동떨어진 것이 대량으로 남조되어 리베라옹지에서는 에코 뮤지엄의 타락이라고 비판아고, '후퇴한 박물관'이라고까지 불리었다.

한편, 제4세대 이후의 전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헌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커뮤니티형과 시설형

위베르에 의한 분류에서는 커뮤니티형 에코 뮤지엄은 크뢰조 몽소 레민과 같은 참가형 프로세스에 의해서 내발적인 발전을 지향하며, 민간의 자발적 독립 조직에 의한 것을 가리킨다. 한편 시설형 에코 뮤지엄이란 종래의 지역 그룹이나 자치체 등 공적 조직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지역의 정치세력에 농락당할 위험성도 있다.

또한 에코 뮤지엄이 단독적으로 유산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어떤 면만을 너무 과장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커뮤니티 단체의 활동이 다른 활동을 배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해야하며, 이 점에 대한 두가지 유형 에코 뮤지엄은 학술적 활동이나 오래된 지역의 박물관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자체 활동에 빠지기 쉬운 데 반해 커뮤니티형 에코 뮤지엄은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재차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 에코 뮤지엄의 설립 목적에 의한 분류

쥬베르는 프랑스의 에코 뮤지엄 31곳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이하 6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한편, 괄호 안은 쥬베르가 1992년 시점에 분석한 표현이다.

① 연구베이스형(학술사업이 주제가 되는 에코 뮤지엄)

산칸탄 안 이브리누 등 해당하는 곳은 3개소이며, 그 외 다른 5개소가 두 번째로 연구를 중시한다. 어느 영역 내에 중심이 되는 연구시설은 있지만, 특별한 안테나 분관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보전베이스형(보전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에코 뮤지엄)

몬 로제르 등 해당하는 곳은 3개소이며, 그 외에 12개소가 두 번째로 보전을 중시한다. 주로 자연환경의 보호, 지역보전을 중심으로 한 자연공원형 에코뮤지엄이 이에 해당한다.

③ 커뮤니티형(커뮤니티 사업을 우선시하는 에코 뮤지엄)

라르작이나 크뢰조 몽소 레민 등 해당하는 곳은 4개소이며, 그 외에 6개소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중요시 한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프랑스에는 별로 진행된 것이 없고, 케나다의 퀘백이나 유럽 다른 곳에서 진척되고 있다.

④ 문화사업형(문화사업을 주로 하는 에코 뮤지엄)

마르제리도 등 해당하는 곳은 7개소이며, 그 외에 3개소가 문화를 중시한다. 지역에서의 유형·무형 문화를 보전하는 것이 중심과제인 에코 뮤지엄 유형이다.

⑤ 영역활동형(영역 사업을 주로 하는 에코 뮤지엄)

바스 세누 등 해당하는 곳은 10개소이며, 그 외에 2개소가 영역을 중요시한다. 어느 일정한 영역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등을 정비하고, 보전해 가는 분산형 박물관 유형이다.

⑥ 지역경제형(경제사업이 기초가 되는 에코 뮤지엄)

푸르미 트렐롱 등 해당하는 곳은 4개소이며, 그 외에 3개소가 경제를 중시한다. 그 지방 고유의 산업, 지역경제의 활성화를목적으로 설립된 지방도시 등에서의 활동이다.

3) 에코 뮤지엄의 확산

에코 뮤지엄은 ICOM이라는 국제적인 조직의 공적인 장에서 명명하고 공인하여 추진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영어권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어권에서 스페인어권, 포르투갈어권, 이탈리아어권 등 라틴계 나라들로 퍼져 나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세계의 에코뮤지엄 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일례로 쥬베르에 의하면 세계에는 에코 뮤지엄으로 칭하고 있지는 않아도, 에코 뮤지엄적인 사고방식을 실천하고 있는 조직이 약 90개 정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에 82~86곳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거기에는 일본의 사례는 소개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판정기준이 약간 애매한데 전 세계로 확산된 어림수는 된다고 생각된다.

본가인 프랑스에서는 에코뮤지엄의 이름으로 올린 것은 전부 60곳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에코 뮤지엄과 사회박물관연맹에 가맹한 것 중에서 에코 뮤지엄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은 1996년 현재 프랑스 37곳, 벨기에 3곳, 케나다 1곳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벨기에의 프랑스어권역에 그리고 케나다의 프랑스어권인 퀘백주에 있다. 케나다에서는 아메리카합중국의 '근린 박물관'의 개념 등에

촉발되어 도시에서의 활동이 추진되어 왔다. 근대 이후 새로운 커뮤니티에서의 정체성 확인 작업과 지금까지의 커뮤니티만들기에 깊이 관여하는 스타일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케나다의 퀘백주를 중심으로 하여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서 주민의 내적 힘을 높이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촉매'의 혁할을 하는 에코 뮤지엄이 각지에서 시도되었다. 이들은 크뢰조 몽소 레민 에코 뮤지엄의 활동에 촉발되어 커뮤니티 주도의 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이념들과 실천의 전개에 의해서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대륙으로, 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에코 뮤지엄의 이념이 퍼져서 최근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시아에도 보급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운동의 이론에 바린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박물관학의 논객이 세계 각지에서 친근한 커뮤니티의 실천을 거듭해 온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커뮤니티형 에코 뮤지엄의 실천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는 반드시 '에코 뮤지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 이론화를 도모하는 국제적인 운동으로는, 뉴뮤지올로지라는 말 아래 MINOM[6]이라는 국제적 조직망이 구성되어 에코 뮤지엄의 세계로의 전개에 관계하고 있다.

<자료1> 에코 뮤지엄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7]

- 에코 뮤지엄은 문화적 풍경 속에서 선택 된 몇몇의 환경으로 이루어진다.
- 에코 뮤지엄은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원래 그것이 있었던 형태로 현장 설명을 한다.
- 에코 뮤지엄은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열중한다.
- 에코 뮤지엄은 보존, 복원, 재건 노력을 한다.
- 에코 뮤지엄은 방문자를 문화 유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신박물관학을 위한 국제운동. 1983년에 설립된 ICOM의 공인제휴조직 중 하나.

- 에코 뮤지엄은 이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호 한다.
- 에코 뮤지엄은 지방자치제, 비영리협회, 조직단체, 회사, 민간의 결속 에 의한 노력으로 비롯된 것이다.
- 에코 뮤지엄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 에코 뮤지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특정지역을 여행자가 다가가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에코 뮤지엄은 지역 정체성 의식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마음을 움직인다.
- 에코 뮤지엄은 학교와 모든 차원의 교육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 에코 뮤지엄은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새로운 모습과 개선진보는 모두 장·단기에 상관없이 진화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다.
- 에코 뮤지엄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까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에코 뮤지엄은 예술가, 장인, 배우, 음악가들과 서로 협력한다.
- 에코 뮤지엄은 공부 동아리라는 의미와 학술적 차원의 의미 양쪽 연구 모두를 촉진 시킨다.
- 에코 뮤지엄은 기술과 인간, 자연과 문화, 과거와 현재, 지금부터와 지금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베리스라겐 에코 뮤지엄의 영어판 팸플릿 발췌(1955)

Ⅲ. 제주도의 에코 뮤지엄

1. 제주도 자연문화유산

1) 제주 돌의 가치

지하수와 온천개발을 위한 심부시추 결과, 제주도 해수면 하부 120m 지점부터 그 아래로는 모래와 뻘로 구성된 U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U층은 두께가 대략 200m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바로 이 U층과 접하는 부분의 현무암이 170만 년 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주도는 약 170만년 전부터 모래와 뻘 위로 용암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대지를 만들고 한라산이 형성된 것이다. U층은 바로 빙하기에 해수면이 가장 낮았던 시기의 제주대지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중국·한반도와 육로로 연결됐던 제주도 초기의 모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지층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생대 제4기 동안 화산활동이 만들어 낸 섬 제주도는 고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화산·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발자국화석 등 다양한 화석의 산출로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에서 화석의 산출은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제주의 화석은 수성화산활동과 관련된 퇴적층에서 산출되며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국내외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서귀포층의 패류화석이다. 신양리층의 패류화석과 유공충화석도 학계에 보고됐다. 여기에다 송악산 일대 해안가에서 사람발자국과 새발자국화석의 발견으로 화산섬 제주의 고환경과 화산·지질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8)]

2) 화산섬의 독특한 주거공간

제주도는 오늘날과 같은 자연환경을 갖추는 과정에서 많은 화산활동과 바위그늘을 만들어 냈다. 제주의 동굴과 바위그늘유적은 그 숫자면에서 뿐

8) 이윤형/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p18~p19, 2006, 2

만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며 오랜 기간 집자리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육지부의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주거문화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순상화산체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펼쳐진 광활한 초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초원지대는 수렵·채집을 위주로 한 선사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냥터이자 생활무대가 된다. 광활한 초원지대는 초식동물들의 훌륭한 서식처이자 풍부한 야생열매의 공급처가 되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정착성 보다는 이동성이 강한 수렵 집단에게는 제주섬 곳곳에 분포한 동굴·바위그늘은 좋은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다.[9)]

3) 해녀문화

해녀란 바다에서 수면공기공급장치나 스쿠버장비 등의 호흡장치 없이 해삼, 전복, 미역 등의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성잠수작업자를 지칭하며 잠수형태로는 지식잠수(止息潛水, breath hold diving)가있다. 지식잠수란 흡기 후 수분동안 숨을 참고 잠수작업을 한 후 수면으로 상승하는 잠수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548호 8(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 2009. 11. 4)에 의하면 현재 수산업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해녀'라고정의하고 있다. 강인한 제주여성의 표상인 해녀는 요즘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 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바다에서 하는 힘든 노동을 기피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을 시키지 않는 것도 해녀격감 및 고령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통 갈옷

9) 이윤형/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p31~p32, 2006

제주 사람들은 무명옷에 다풋감을 빻아 짜낸 감물들인 갈옷을 즐겨 입었다. 갈옷은 1960년 6대까지 제주의 일반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던 노동복이자 일상복이었다. 갈옷은 제주사람과 제주의 감, 물, 그리고 작렬하는 뙤약볕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뛰어난 지혜의 산물로서, 제주의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에 알맞게 최상의 조건들이 구비된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인 옷으로 제주문화 10대 상징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10]

갈옷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사람들은 갈옷의 재료를 가까운 주변에서 구했고, 그것들을 별다르게 가공 하지 않았다. 감은 그저 빻아서 감물을 내면 되었고, 감물들일 천은 어떤 것이나 가능했고, 평소에 입는 옷도 감물을 들이면 그대로 갈옷이 되었다. 갈옷은 화산섬 제주의 흙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더러워져도 눈에 띄지 않고, 빨아서 손질을 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갈옷은합리적이고실용적인것을중시하는제주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옷 이었다.

갈옷은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고, 땀이 잘 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땀이나 비에 젖어도 몸에 잘 달라붙지 않으며, 빨리 건조되어 매우 실용적이다. 그리고 감물을 들인 천은 질길 뿐만 아니라 젖은 채 며칠을 두고도 썩지 않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감물을 들이게 되면 빳빳해지고 강도가 강해져서 가시덤불에 걸려서 찢겨지는 일도 드물고, 오물이 붙었다가도 털면 잘 떨어진다. 그리고 갈옷은 옷감이 감염색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더러움도 덜 타고, 더러워진 다음에도 맹물에 주물럭거려 헹구어 털어 말리면 그만이니 참으로 편리하다. 그리고 오래 입게 되면 빳빳한 기가 죽어서 시원한 촉감도 덜하고 색도 흐려지면서 칙칙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감물을 들여 바래면 새것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입다가 후줄근해진 삼베나 모시옷도 감물을 들여 입었고, 특히 낡은 모시옷에 감물을 살짝 들인 것은'재생일품거리'였다. 이처럼, 제주의 갈옷은 소박하면서도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갈옷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갈옷은 보통 서양의'청바지'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갈옷은 청바지에 비해 훨씬 많은 장점이 있다. 올이 가늘고 질

10) 제주문화상징, p4~p6, 2008

긴 능직면인 '진(gean)'은 겉옷을 만드는 옷감으로 그 용도가 한정 되어있다. 반면에 다양한 천에 감물을 들여 만드는 갈옷은 그 응용 여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갈옷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면으로 된 기성복도 감물만 들이면 갈옷으로 탄생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응용 갈옷이 탄생될 수 있다. 실제로 시대에 따라 여러 유형의 옷에 감물 들이는 것이 응용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여성 노동복인 '몸뻬'에, 1970년대 이후 에는 '예비군복'에 감물을 들여 노동복으로 입었고 청바지는 1930년대에 리바이스트라우스(Levi Strauss)가 광부들의 바지가 쉽게 헤진다는데 착안하여 질긴 천막용천으로 바지를 만든 것이 시초이다. 질기고 튼튼한 청바지는 일반인에게까지 실용성을 인정받아 널리 보급되었고, 미국서부영화의 주인공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이 되었다. 원래 작업복이었던 청바지가 최근에는 전 세계 청년 남녀사이에서 평상복과 레저웨어 등으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착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낡은 남방셔츠에 감물을 들여 노동복으로 입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감물을 들여 바랜 옷감으로 한복과 서양복을 절충하여 만든 개량 갈옷이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갈옷으로 만든 양복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갈옷은 블루진과는 달리 무궁무진하게 응용 할 수 있어서 블루진 이상으로 세계화 가능성이 높다. 갈옷이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옷으로 되기 위해서는 작업복에서 의례복까지, 내복에서부터 겉옷까지, 단순 소박한 전통 갈옷에서부터 최고급의 패션 갈옷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격에서도 아주 저렴한 것에서부터 천문학적 가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갈옷들이 개발 되어야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갈천이 더 이상 갈옷을 만드는 데만 국한 되지 않고 모자, 가방, 지갑, 방석, 쿠션, 이불, 토슈 등 다양한 패션과 웰빙을 겸한 상품으로 개발 되고 있다. 이처럼 갈옷은 단순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주변의 소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5) 제주어

유네스코는 최근 제주어를 인도의 코로(koro)어 등과 함께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했다. '소멸위기 언어 레드북' 홈페이지에 소멸 위기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등재한 것이다. 이는 제주어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유네스코 분류에 따르면 1단계는 '취약한 언어'이며, 2단계는'분명한 위기에 처한 언어', 3단계는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를 뜻한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가 이미 '소멸한 언어'를 지칭한다는 것을 떠올리면 4단계 '진단'을 받은 제주도 방언은 부지불식간에 소멸 직전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일상에서 제주도 지역어가 실질적인 언어 사용 인구 면에서 현저하게 그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민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일상어휘로서 제주도 지역어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육지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주어는 낯설고 재미있는 언어, 혹은 방언일 뿐 아니라 오히려 표준어와 멀게 느껴져 마치 심한 사투리거나 소수 인구의 언어 정도로 치부돼온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아래아와 중세 어휘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 한국어의 원형을 보여주는 언어로서의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다.

6)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제주도는 난대·온대·한대 및 아고산대에 걸쳐 1,800여종의 식물과 곤충 등 4,000여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주변 및 서귀포시 영천과 효돈천을 연계한 지역은 동굴폭포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 등 독특하고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서귀포시립해양공원 지역은 파초일엽, 상록활엽수림, 흑비둘기서식, 패류화석층, 해안폭포 및 국내 유일의 아열대성 연성산호 군집, 455종의 해양동물 출현, 21목 98과 232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다.

제주도는 이들 지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99년부터 유네스코 및 한국 MAB 관계자,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생물권보전지

역 실무추진협의회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13회에 걸쳐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신청안을 확정하였으며 이 안은, 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관련 시·군 서명을 받고 2002년 6월 3일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2년 12월 16일 유네스코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였으며 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한하여 해발 200m 이상 지역, 그리고 영천과 효돈천 및 그 주변 500m이내 지역, 서귀포 시립해양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역으로 전체면적은 83,094ha로 핵심지역 15,158ha, 완충지역 14,601ha 전이지역 53,335ha로 되어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제주도가 지정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 만 아니라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제주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 관광객 증대효과가 있음은 물론,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화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제주도 박물관의 변화

1) 제주도 박물관 현황

1990년대 정부가 세운 문화발전 10개년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문화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규제가 강한 기존의 '박물관 법'을 폐지하고 1991년 11월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제정하였다.[11] 또한 그 이후 박물관・미술관 설립촉진, 등록대상 확대, 운영의 효율화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 하는 방향으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 역시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제주도 박물관 수는 285.71% 증가하였다.[12]

---

11) 문화관광부의 발표(2003)내용으로 「제3회 제주지역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모색에 대한 워크샵 자료」에서 발췌 p.130, 2007, 12

12)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재과 제공(2007)

표 2. 전국 시・도 별 박물관・미술관 현황[13]

시도	계 :707	박 물 관				미 술 관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579	282	215	82	128	28	95	5
서울	127	97	17	58	22	30	1	27	2
부산	14	11	4	2	5	3	1	1	1
대구	9	9	4	2	3	0	0	0	0
인천	17	14	7	6	1	3	1	2	0
광주	12	6	4	0	2	6	1	4	1
대전	19	15	3	6	6	4	2	2	0
울산	4	4	3	0	1	0	0	0	0
경기	123	97	40	49	8	26	5	20	1
강원	64	58	40	13	5	6	3	3	0
충북	38	32	20	8	4	6	2	4	0
충남	42	37	22	13	2	5	0	5	0
전북	32	29	20	5	4	3	2	1	0
전남	38	26	20	4	2	12	2	10	0
경북	65	60	39	10	11	5	1	4	0
경남	51	46	28	13	5	5	3	2	0
제주	52	38	11	26	1	14	4	10	0

위 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등록 된 박물관・미술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700관을 넘는다. 이것은 2004년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수립연구”에서 제시한 2011년 박물관 미술관 건립 목표치인 500만(인구 9만명당 1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수가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의 등록 박물관 수는 52개 이며, 제주도의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였을 때, 타 지방에 비하여 그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전국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은 등록수를 보인다.

13)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09)

표 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박물관 리스트

시도	시군구	구분1	구분2	시설명	주소	연락처
제주	제주시	국립	박물관	국립 제주 박물관	제주시 삼사석로 11	064)720-8000
	소계			1		
	서귀포시	공립	박물관	감귤 박물관	서귀포시 신효동 산 1번지	064)767-3010
	서귀포시		박물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 특산물 홍보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58	064)732-1558
	서귀포시		박물관	서복 전시관	서귀포시 100-1번지 일대	064)763-3225
	제주시		박물관	제주 교육 박물관	이도2동 539-14번지	064)752-9101
	제주시		박물관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일도2동 996-1번지	064)722-2465
	제주시		박물관	제주 돌 박물관	제주시 교천읍 교래리 산119번지	064)710-6631
	서귀포시		박물관	추사적거지전시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번지	064)760-3406
	서귀포시		박물관	하멜상선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064)794-2940
	제주시		박물관	한라 수목원	제주시 수목원길 40	064)710-7575
	제주시		박물관	해녀 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04-1	064)782-9898
	소계			10		
	서귀포시	사립	박물관	곰완구 전시관	서귀포시 색달동 1889번지	064)738-7600
	서귀포시		박물관	나비공원 프시케 월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01	064)799-7272
	서귀포시		박물관	닥종이 인형 전시관	서귀포시 법환동 914 월드컵경기장내	064)739-3905
	제주시		박물관	도깨비 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89-1	064)783-3013
	제주시		박물관	돌하르방 공원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76	064)782-0570
	제주시		박물관	방림원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20-91	064)773-0090
제주	제주시	사립	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534	064)772-3701
	서귀포시		박물관	석부작 박물관	서귀포시 호근동 569-2	064)739-3161
	서귀포시		박물관	설록차 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1235-3	064)794-5312
	제주시		박물관	세계 미니어처 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6-4	1566-7721
	서귀포시		박물관	세계 자동차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2065-4	064)792-3000
	서귀포시		박물관	소리섬 박물관	서귀포시 색달동	064)739-7782

					2864-36	
	서귀포시		박물관	소인국 테마파크 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725	064)794-5400
	서귀포시		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서귀포시 대포동 1833	064)738-6565
	서귀포시		박물관	여미지 식물원	서귀포시 색달동 2484-1번지	064)735-1100
	서귀포시		박물관	일출랜드 식물원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	064)784-2080
	서귀포시		박물관	제주 건강과 성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736	064)792-5700
	제주시		박물관	제주 공룡랜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77-1	064)746-3060
	제주시		박물관	제주 민속 박물관	제주시 삼양3동 2505	064)755-1976
	서귀포시		박물관	제주 민속촌 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	064)787-4501
	서귀포시		박물관	제주 신영 영화박물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81	064)764-7777
	서귀포시		박물관	조안 베어 뮤지엄	서귀포시 대포동 1959번지	064)739-1024
	제주시		박물관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97	064)784-9001
	제주시		박물관	평화 박물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847	064)772-2500
	제주시		박물관	한림 공원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87	064)796-0001
	서귀포시		박물관	화석 박물관	제주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357-1	064)787-7831
	소계			**26**		
	제주시	대학	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064)754-2241
	제주 총계			**38**		

2) 문화 관광자원으로서 제주 에코 뮤지엄

앞서 소개 된 바와 같이 제주도 내 등록 되어있는 총 38개의 등록 박물관 중에서 한라 수목원, 제주 돌 박물관, 해녀 박물관, 나비공원 프시케 월드, 돌하르방 공원, 방림원, 생각하는 정원, 석부작 박물관, 여미지 식물원, 일출랜드 식물원, 제주 민속 박물관, 제주 민속촌 박물관, 평화 박물관, 한림 공원, 화석 박물관의 16개 박물관(도내 박물관 전체 수의 42%)이 에코 뮤지

엄에 속한다.

3) 에코 뮤지엄을 통한 지역 관광 개발

가.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제주도내 박물관의 주제가 다양화·전문화되면서 박물관이 주제와 관련된 장소에 입지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박물관이 관련된 장소에 입지한다는 것은 주변경관이 박물관의 주제와 일관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은 관람객의 동선을 박물관에만 잡아두지 않고 박물관 주변으로까지 확대 시킨다. 따라서 관람객은 박물관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특성이 반영 된 야외 경관을 함께 감상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에코 뮤지엄 이란 형태 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에코 뮤지엄에는 실체가 없다고 까지 말을 한다. 확실히 에코 뮤지엄을 실체적 개념 보다는 관계적 개념이다. 결국 지역의 유산과 시대, 민속성, 자연 환경에 따라서 자유자제로 변환 되며, 그에따라 해석의 여지도 다양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지역 에코 뮤지엄이 주변 경관, 마을과 유기적으로 하나의 개념이 되어 주변지역을 홍보하고 공동적 소득을 증대 시켜 나아가 그 일대가 박물관을 거점으로 하나의 특화된 관광지로서 발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그림 4] 평화박물관의 알뜨르 비행장 전망

나. 박물관 주제와 관련 된 체험률 증가

에코 뮤지엄은 입지한 주변 지역과 체험프로그램, 축제, 시설물 등을 통해 연계 형성을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감귤 랜드에 입지한 감귤 박물관의 경우 농장에서 감귤 따기 체험과 감귤스파 체험을 하고있고 제주 해녀 항일 운동 기념공원에 입지한 해녀 박물관은 전문 박물관 해설사를 두어 좀 더 고급화된 지역적·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해녀 민속마을투어를 통해 실제 해녀들의 삶을 몸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교래리 곶자왈에 위치한 제주 돌 문화공원은 설문대 할망 페스티발을 매년 개최 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박물관을 매개로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중섭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이중섭 미술관은 생전의 유배지를 그대로 두어 관람객이 몸 소 체험 할 수 있도록 운영 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에코 뮤지엄의 체험활동은 관람객에게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으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체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감귤 박물관 관람객의 추가 체험 욕구[14] **(단위: 명)**

체험 내용	긍정 응답	부정 응답	무응답	합계
감귤음식 혹은 감귤가공식품을 먹고 싶다.	78 (91.8%)	5 (5.9%)	2 (2.3%)	85
감귤을 직접 따보고 싶다.	75 (88.2%)	9 (10.6%)	1 (1.2%)	85
감귤농장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	74 (87.1%)	8 (9.4%)	3 (3.5%)	85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60 (70.6%)	22 (25.9%)	3 (3.5%)	85

표 5. 해녀 박물관 관람객의 추가 체험 욕구[15] **(단위: 명)**

체험 내용	긍정 응답	부정 응답	무응답	합계
해녀가 직접 잡은 해산물을 사고 싶다.	87 (83.7%)	12 (11.5%)	5 (4.8%)	104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	85 (81.7%)	14 (13.5%)	5 (4.8%)	104
해녀식당에서 식사 하고 싶다.	68 (65.4%)	31 (29.8%)	5 (4.8%)	104

14) 김한도, 2007. 9,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 개발」, p18, 설문조사표
15) 김한도, 2007. 9,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 개발」, p19, 설문조사표

해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	64 (61.5%)	35 (33.7%)	5 (4.8%)	104
해녀와 함께 해산물을 캐보고 싶다.	62 (59.6%)	37 (35.6%)	5 (4.8%)	104

이처럼 박물관이 인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나 특산물, 민속을 매개로 한 체험을 통해 관람객의 체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역과 박물관이 하나의 특화된 군락을 구성하여 에코 뮤지엄의 기능적 요소를 활성화 하고 더불어 전시 패턴에서도 차별화를 두어 체험적 전시 컨텐츠를 개발함으로서 간접체험을 통한 관람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접한 박물관 혹은 같은 주제의 박물관끼리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하나의 맞춤형 테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통합적 지역 브랜드를 창출 하고 나아가 제주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이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역성 고취시켜 관광자원화 강화

관광객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관광을 즐기기 때문에 일상생활과는 다른 차이를 추구한다. 따라서 관광은 차이의 매력에 부분적으로 기반하며 그 지역 혹은 그 장소가 독특한 곳일수록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즉 지역성이 뚜렷한 지역일수록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에코 뮤지엄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 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귤 박물관과 해녀 박물관을 관람한 관광객에게 박물관의 주제가 제주도를 대표 한다고 생각 하는지를 설문 하였다. 아래의 표와 같이 관광객이 감귤, 해녀라는 에코 뮤지엄의 주제를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하여 박물관 관람 전과 후를 비교 했을 때, 5점 척도의 평균값이나 긍정적인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코 뮤지엄을 관람한 관광객은 박물관의 주제에 대하여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코 뮤지엄이 제주도내에서도 특별히 박물관의 주제로 대표적인 혹은 관련된 지역에 입지함으로서 관광객은 박물관의 전시물 관람 뿐만 아니라 박물관 주제와 관

련한 관광행위를 박물관 일대에서 하게 되어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 강화는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욱 특별한 곳으로 인식을 하게 함으로서 관광 매력을 증폭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6. 감귤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 인식하는 정도의 변화[16]

구분	인식의 정도(응답률:%)						평균값
	매우 긍정 (5)	긍정 (4)	보통 (3)	부정 (2)	매우 부정 (1)	무 응답	
관람 전	55 (67.1%)	20 (24.4%)	7 (8.5%)	0 (0.0%)	0 (0.0%)	3	4.59
관람 후	64 (%)	17 (20.7%)	1 (1.2%)	0 (0.0%)	0 (0.0%)	3	4.77

표 7. 해녀가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인식하는 정도의 변화[17]

구분	인식의 정도(응답률:%)						평균값
	매우 긍정 (5)	긍정 (4)	보통 (3)	부정 (2)	매우 부정 (1)	무 응답	
관람 전	32 (35.2%)	39 (42.8%)	19 (20.9%)	1 (1.1%)	0 (0.0%)	13	4.12
관람 후	56 (56.0%)	38 (38.0%)	5 (5.0%)	1 (1.0%)	0 (0.0%)	4	4.49

16) 김한도, 2007. 9,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 개발」, p19, 설문조사표
17) 김한도, 2007, 9,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 개발」, p19, 설문조사표

Ⅳ. 해외 대표 사례 분석

1. 유럽의 에코 뮤지엄 형성 배경

에코 뮤지엄은 기존의 뮤지엄의 영역을 넘어, 즉 확장된 영역으로 박물관이라는 건물의 외부로 확장되고, 기존 박물관내 전시물들의 소유권에 반하는 지역사회의 지역마을과 주민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는 간단하지만 기존의 박물관과 차이를 갖는 점이다. 이러한 에코 뮤지엄이 유럽에서 어떻게 형성·변천 되어 왔는지 알아본다. 유럽 중에서도 다른 나라와 다소 차별적인 형성과 발전과정으로 현대적 에코 뮤지엄에 모티브가 되고, 가장 근대의 에코 뮤지엄과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의 에코 뮤지엄을 살펴본다.

가. 프로토 에코 뮤지엄(Proto - eco museum)

프로토 에코 뮤지엄은 최초의 에코 뮤지엄으로 유럽 지역에서 대중문화의 향상을 위해 19세기에 만들어 졌다. 뮤지엄의 향상을 위해 19세기에 만들어 졌다. 뮤지엄의 초기 단계에는 민족적이며 애국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주된 목적은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있었으나 산업화로 인해 지방의 다양성과 문화적 요소들이 파괴 되었다. 이탈리아의 민속학자 Giuseppe Pitre에 의해 팔레리모(이탈리아 시실리 섬의 수도이자 항구도시)에 1894년-1895년 동안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뮤지엄이 만들어졌고, 1911년엔 지역적 민족주의가 강조된 뮤지엄이 로마에 만들어졌다. 1891년 Artur Hazelius는 스웨덴 Skansen 지역에 농촌지역의 삶의 풍경과 복합적인 풍경의 재생을 위해 옛 농촌건물을 분해하고 그 것을 다시 재조합하여 마을에 다시 건립하였다. 이 방법은 스칸디나비아를 대표하는 Open Air Museum의 전통적인 방법이 되었고 , 이 후 유럽의 다른 지역에 급속히 전파 되었다.

나. Open Air Museum에서 Open Museum으로

소규모 지역 뮤지엄은 역사, 지역전통활동, 산업 또는 지역에만 있는 특색을 조명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박물관의 중요한 혁식을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친다. Open Museum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발달했는데, 독일은 1914년-1918년 전쟁의 말기에 경험 하였던 국민을 결집시킬 필요성을 뮤지엄의 설립을 통해 해결 하고자 하였다.

Open Museum의 성립은 작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지역의 유산과 역사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이 시도는 박물관학적인 역사에 있어 매우 혁신적이었다. 이 Open Museum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통적인 뮤지엄의 단순 전시들을 관람하는 것에 그치는 대신 박물관 내에서 국수주의적인 나치즘 주입과 선전활동의 교육과 학습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국제적인 뮤지엄 변화의 징후였던 Open Museum의 정점은 전혀 다른 정치적인 상황에서 전통적인 Musee d'Arts(1935)를 만듦으로서 본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다. 새로운 박물관학(New Museology)

2차 세계대전 이후 박물관학과 관련해 새롭고 많은 아이디어와 시도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대중문화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관심 또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간다. 둘째, 민족지향, 지역 지향적이던 뮤지엄은 산업적이고 도시로의 진출에 흥미와 관심이 증폭되어간다. 셋째, 박물관은 직접적으로 방문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혀애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넷째, 견고한 건문 또는 다른 커다란 전시물들의 분해와 재건 대신 그 원초의 장소를 보존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간다.

50년대의 전원생활을 뮤지엄들은 스칸디나비아 이주민들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어졌다. 이후 60년대 아뜰리에 뮤지엄의 개념은 열린 뮤지엄으로서, 관람객은 살아있는 풍경들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물건을 관찰하는 것만이 아닌 사용하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의 전시 체험관의 모태가 된다고 하겠다.

라. 통합된 뮤지엄(Intergrated Museum)

에코 뮤지엄은 전체 또는 모든 뮤지엄의 일부분임을 인식하면서도 뮤지엄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파도로 인식되며 수많은 논쟁과 회의를 오랜 기간 지속시켰다. 지역사회와 장소의 개념을 결합한 에코 뮤지엄의 개념과,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존하기 위한 시도를 바탕으로 '환경보존'과 '발전'의 두가지 측면이 서로 비교되었고, 이는 자연적인 환경과 전통적인 주거를 복합시키기 위해 스칸디나비아의 열린 박물관과 미국 공원의 융합된 형태로 시도되게 된다.

통합 뮤지엄의 모델은 1973년 Le Greusot에 위치한 것이다. 박물관학적인 원칙과 접근이, 환경적 차원의 에코 뮤지엄들과 매우 유사하였지만 Le Greusot에 의해 영감을 받은 에코 뮤지엄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에코 뮤지엄 그 자체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마. 현대적인 에코 뮤지엄

80년대 초기에 환경을 강조한 뮤지엄과 지역사회를 강조한 뮤지엄은 박물관의 위치 개념을 어느 한 공간에서 장소의 개념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박물관학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성에 근간을 둔 개념의 강조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당시의 에코 뮤지엄은 개인 사업가들의 상업적인 목적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인 투자의 형태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에코 뮤지엄은 사회적인 필요를 인식한 각 지방의 자치단체난 지역단체들이 인도하면서 등장하게 된다. 80년대 지역 발전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현대적인 에코 뮤지엄들이 성장하게 된다.

바. 글로벌 시대의 에코 뮤지엄

경제적인 측면은 에코뮤지엄 구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적 정체성의 발전 등은 에코 뮤지엄을 더욱 성장시키기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 정체성의 발굴 및 보존, 지역유산 및 지역발전의 이해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손해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지만, 지역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 전통의 보존은 환경적 가치나 문화적 유산들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Open Air Museum들과 유사한 개념하에 환경의 재창조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에코 뮤지엄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된다. 이러한 시기에 Open Air Museum은 지역유산의 역사적 뿌리를 탐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각되기 시작하고 지역과 전시유물들에 근본을 두고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한다.

2. 프랑스의 에코 뮤지엄

1) 전형적인 에코 뮤지엄

전형적인 에코 뮤지엄은 실내의 본관(Core)[18]과 그를 아우르는 분관으로 나뉜다. 브레스·부루기뇽 생태박물관은 부루고뉴 지방권의 브레스 지방 전체를 구역으로 피에르·도·브레스 성(成)을 본관시설로서 이용하고 있다. 구역의 면적은 1,690㎢이고, 115마을을 가질 수 있다. 이 지역은 과거에는 지중해의 바다 밑에 있었던 곳이고 이와같은 점토질의 토양 위에서 자란 문화라는 공통점을 갖는 지역이다.

본관 시설인 피에스·도·브레스 성의 상설 전시실에서는 우선 브레스의 전체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지세(地勢)나 그 역사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다.

주변에 대한 약식 전시도 이루어지고 각 주변마다 코너가 정비되어 있다. 더욱 자세한 전시·해설은 직접 분관(Satellite)에 가도록 제시 되고 있다.

분관에는 「밀과 빵의 박물관」, 「숲과 나무의 박물관」,「농업 분관」, 「포도 재배와 와인 만들기의 분관」, 「신문 인쇄소 분관」이 있고, 발견의 좁은 길로서 「물레방아간의 회로」가 정비되어 있다 . 에코 뮤지엄의 「카탈로그」와 더불어, 개개의 분관에는 개별적인 소책자가 만들어지고, 이들 인쇄물은 주변의 하나로, 동태가 보존되어 있는 「신문 인쇄소 분관」

18) 본관과 분관은 에코 뮤지엄의 기본형으로 다음에서 제시하는 에코 뮤지엄에도 본관과 분관의 형태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관과 분관의 개요를 표시하고 본관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특징적인 에코 뮤지엄이 하나의 기본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의 인쇄기계로 인쇄된다.

몇 개의 분관을 살펴보자면 「밀과 보리의 박물관」은 17세기 후반의 사무소의 청사였던 2층 건물인 작은 건물에 있고, 보리(1층)와 빵(2층)의 전시가 되어있다. 빵의 전시는 빵의 기원, 빵 제조의 다양한 도구류, 프랑스 국내의 다양한 빵 종류 전시, 빵에 대해서는 제빵 학교의 학생이 실습으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이 시설은 원래 마을의 박물관 이다. 에코 뮤지엄 설립 후 분관에 집어 넣었던 것인데, 협력 박물관이라 부르고 있다. 「숲과 나무의 박물관」은 폐교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에코 뮤지엄의 활동이 갖는 교육적 기능이나 지역 전통의 보존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을은 쾌히 승낙 했다고 한다. 나무들을 소개하는 전시 코너에서는 해당 지구에 있는 숲의 나무 이름, 어떤 토지에서 생장하는가, 나무 형태나 잎의 모양, 꽃의 형태나 열매가 생길까, 나무의 이용 목적, 나무에 관한 민속적 화제 등이 해설되어 있다. 전시 방법으로서는 벽에 판넬로 보태니컬 아트(식물활용예술)처럼 상세한 나무 모양이나 잎, 꽃, 열매의 그림이 그려져 그 밑에 같은 나무를 사용하여 예술가에 의해 작성된 꽃이나 잎의 부조가 있다. 그 밑에는, 그 나무로 만든 공 모양의 덩어리가 놓여 있다. 부조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만져보고 형태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공 모양의 덩어리는 들어 올려 다른 나무와 그 무게를 비교 할 수 있다. 참여형 박물관의 성격을 나타낸다.

「농업 분관」은 1986년에 농작물의 창고를 개조한 건물을 이용하여 개관하였다. 농기구의 변천사를 전시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재인 브레스 닭이 전시되고 있다. 분관시설로 이루어진 민속 유산 학급에 온 학생은 여기서 농업에 대해 배우고, 분관시설에 가까운 농원에서 농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주변의 협회에는 학교의 교사 등 14명의 자원 봉사자 스텝이 있고, 이들은 교대로 시설물을 설명하는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분관의 또 다른 특징은 분관 시설과 같은 대지 안에 도서관과 집회 시설이 있어서 문화시설 기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관은 예전의 농가 주택의 창고를 이용한 것인데, 도서관은 원래 주거지였고 집회시설은 원래 물레방아간이다. 마을의 문화 정책과 에코 뮤지엄이 제휴하고 있는 예이다.

「포도 재배와 와인 만들기 분관」은 예전에 포도 재배를 하던 큐이죠 라는 마을이다. 큐이죠는 중세의 성채도시이기도 하고, 이 마을에는 성채로서의 역사유산, 포도의 산업 유산과 민속유산이 있다. 에코 뮤지엄이 고장의 향토사 연구의 협회에 대하여 이 지구의 포도 역사의 조사를 의뢰한 그 결과로서 마을이 제공한 건물에 의해 분관이 시작되었다.

발견의 좁은 길인 「물레방아의 회로」는 이 지방에 남은 7종류의 물레방아를 방문하여 순회하는 코스여서 발견의 좁은 길이라 부른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브레스 지방에서 번영한 산업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이것들의 유산과 지역주민들의 관계와 그 전통에 빛을 비춰주려 하고 있다. 시간의 축 안에서 계승되어 온 환경문화 그리고 시대마다 변화해 온 환경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분관은 지역주민들의 기억이 스며들어 친근감을 갖는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 받는다.

분관과 분관 이외에 에코 뮤지엄이 있어 보존·활용되는 유산, 물레방아간이나 농가주택·창고 등을 이용한 레스토랑, 호텔 등도 간접적으로 브레스의 에코 뮤지엄 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지역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길이 뜸하던 시골 마을에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었고, 관광에 의한 지역 진흥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재원(財源)은 자기 자본률(입관료, 협회비 등)은 45%이고, 나머지는 국가(문화, 농업, 관광, 환경, 교육부), 지방의회, 도의회·마을이 거의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고, 기타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의 기부금 수입이 있다.

2) 국립공원 안에 있는 에코 뮤지엄

프랑스 남부에 위치하는 세빈느 공원에는 3개의 에코 뮤지엄이 있고, 또한 제4 에코뮤지엄 설립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에코 뮤지엄은 몬로젤, 세벤느, 코쓰의 각 에코 뮤지엄이다. 세벤느 국립공원은 프랑스의 국립공원 중에서 신기 하게도 거주자가 있는 곳이다. 그 안에서는 옛날부터 소나 양의 방목 등 농업 활동이 이루어져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곳인.

국립공원을 하나의 에코 뮤지엄으로 만드는 것은 그 지질(地質)이 다르기 때문이다. 몬로젤은 화강암 지질이고, 세벤느는 편암(片岩)지질이고, 코쓰는 석회암이다. 여기에는 다른 지질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 되어 있고, 각기 별도의 에코 뮤지엄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이루는 요소가 자연이 다라는 견해가 고장의 담당자의 의견이다.

국립공원 내에 있고 자연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자연을 활용하여 생활해 온 농민의 농업경영 형태나 그 결과로서 생겨난 환경문화가 현재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타내려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의 MAB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의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규제 대상지이면서도 목축이나 농업 활동은 인정하고 있다.

3) 도립공원 내의 에코 뮤지엄

가. 바스세느 에코 뮤지엄

세느강 하구 부근의 58,000ha를 구역으로 하는 바스세느 에코 뮤지엄은 부루톤느 도립 자연공원 안에 있다. 58개의 마을이 참가하고 농업, 조선, 주운(舟運)이나 지역의 생활문화를 테마로 한 13개의 분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1분관은 협회와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에코 뮤지엄은 이들을 지도하고 광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필자가 1993년에 방문했을 때의 조직은 관장 1명, 학예원 1명, 가이드 8명, 학술 연구자 2명, 직원23명, 관리인 1명으로 구성되고, 300만 프랑 정도의 연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중 60%가 사업 예산(입장료, 박물관 쇼핑 매상 등)이고, 나머지는 도립 자연공원에서 오는 보조금이다. 분관의 자금은 독자적으로 조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활동 방식은 무리하게 발돋움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수준에 알맞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랜드 랜드 에코 뮤지엄

보르도 가까이에 모래밭 지질을 갖고 있는 랜드·가스코뉴 도립 자연공원에 있고 사블이라는 마을의 원래 철도역에서 차표(에코 뮤지엄 입장권)을

사서 예전 이 지역의 산업 이었던 송진을 운반하던 노선을 달리는 전철을 타면 그랜드 랜드 에코 뮤지엄에 도착한다.

여기에는 19세기의 마을이 재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야외 박물관 이라기보다는 에코 뮤지엄인 것이다. 이들은 예전에 여기에 있던 건물들이고, 옮겨 짓거나 테마파크와 같이 새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건물은 시설 내부를 이용하여 마을의 생활과 생업에 대한 해설을 듣고, 가이드에 의해 설명을 듣는다. 또한, 이 마을에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고, 그 테넌트(Tenent; 집을 빌린 사람)가 공원 사무소(에코 뮤지엄 사무소)안에 있고, 보르도 와인과 함께 푸아그라를 먹을 수 있다. 별도의 거처에는 송진 제주소 분관이 있다.

이들 2가지 예는 말하자면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깊은 산골 마을의 보존·활용이라는 성격을 갖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자치 주도형 에코 뮤지엄

렌느 에코 뮤지엄은 브루타뉴의 중심 도시인 렌느의 남단, 도시와 농촌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는 농업을 테마로 한 에코 뮤지엄이다. 본관과 분관이라는 구조를 갖지 않고 마을이 사들인 최근 몰락한 16세기부터 이어진 부농의 농장을 전시시설로 하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농원 부분으로 농법 보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 기르고 있던 가축류나 양잠을 재현하고, 주요 생산품인 사과를 비롯해 가축도 포함한 종의 보존을 시도하고 있다. 농촌주택을 이용한 전시 시설에서는 렌느시의 19세기부터의 발전 방식, 농장주 반티네 가에 관한 경제적 후원자와 농장주의 관계나 당시의 생활 상황, 농업의 역사 농업기술의 역사, 농업경영 등에 대하여 전시되어 있다. 이 땅을 번영시키는 기반이 된 농업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행정의 사고가 강하기 보인다.

여기서는 다른 에코 뮤지엄과 같이 농작업을 비롯해 사과 수확 축제, 돼지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팜플렛에는「내방자는 피크닉, 레저로서 에코 뮤지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지역 진흥을 의식한 에코 뮤지엄

루도루 에코 뮤지엄은 니스에서 승용차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들어간 산악지구에 있다. 급경사면에 찰싹 달라붙듯이 주택이 세워진 과소화(過疎化)가 격심한 지구에 있다. 2개의 도에 걸친 3개의 골짜기로 에워 쌓인 지구를 구역으로 삼고 있다. 옛날의 자연을 지킬 것, 마을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와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리광산을 테마로 한 분관 「광산의 집」이 있는데, 동산은 이 지역의 경제를 받쳐 준 것으로서 매우 소중한 유산이다. 광산의 집에는 원래 동산 이었던 만큼, 지구 주민으로부터 기증 받은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슬라이드 쇼에서는 지구의 개황과 함께 광산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에코 뮤지엄에서 특징적인 것은 토목 전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급경사인 토지라서 인구도 줄고,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듦에 따라 산사태의 위험이 많아진다. 이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 울타리를 만들어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사회실험장이고, 이것도 에코 뮤지엄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토지는 마을의 소유를 에코 뮤지엄이 99년에 계약하여 임대하고 있다. 돌 울타리는 자원봉사자가 쌓고 있으며 이 활동은 지중해 6개국 공동의 산사태 대책 사업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에코 뮤지엄의 활동의 성과로서 과소화 하고 있던 지역의 인구도 조금 늘어 젊은인구도 늘어나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활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전 유산을 활용한 에코 뮤지엄 활동을 통하여 지역 진흥 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6) 도시형 에코 뮤지엄

부르고뉴 지역에 크루조·몬 소·레·미누 에코 뮤지엄은 각 활동 단위간에 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본관과 분관의 관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주종 관계를 끝내고 서로가 협약을 맺어 대등하게 활동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의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된 학교시설(교실)을 활용하여 시대별로 교실을 재현하고, 전직 교사를 관장으로 협회회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생리학습 시설로서 관광 시설이 되고 있다. 운하 보존을 하고 있는 「운하를 지키는 모임」에서는 협회가 독자적으로 배를 운항시키며 운하체험과 더불어 활동 자금을 얻고 있다. 시내의 벽돌 공장 자리는 대학의 도서관으로 다시 이용하고 있고, 노동자 숙소는 아파트로 재이용 되면서 예전의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또한, 세라믹 공장 자리를 현재는 수리하고, 여기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젊은이의 직업 재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공업도시의 전통을 활용한 도시 재생을 중심으로 도시 공동체에 따른 도시형의 다양한 활동이 발견되며 에코 뮤지엄의 특징인 「변화」가 가장 잘 보이는 에코 뮤지엄이다. 이것은 지역이 변화하고 활동상에서의 시행착오가 있는 한 당연한 것이다.

파리 근교에도 에코 뮤지엄이 있다. 후렌느 에코 뮤지엄은 예전에는 농업지대였는데 파리 근교의 베드타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과거의 농장주의 건조물을 이용하여 마을의 전통, 특히 농업 관계의 전통을 상설 전시함과 동시에 도시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기획전 등이 실시되고 있다. 새로운 주민이 지역을 이해하는 장소이며 주민의 문화센터적 존재로 되어있다.

산·칸탄·이브리느 에코 뮤지엄은 뉴 타운의 한 가운데에 있다.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뉴타운에서는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에코 뮤지엄의 테마가 된다.

7) 농업 유산 활용형 에코 뮤지엄

프랑스 북부의 후루미·토레롱 에코 뮤지엄은 후루미와 토레롱의 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역을 갖는 에코 뮤지엄이다. 후루미에 있는 본관시설은 원래 방적 공장이고, 여기에서는 방적 기계가 전시되고, 그 공정이 해설된다. 또한, 같은 건물 안에는 생활 박물관이 개설되어, 이 지구의 생활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

토레롱의 분관에서는 유리 공장이 체험 학습시설로서 예전의 유리 공장 직공들에 의하여 실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장인 구쟈르씨에 따르면, 산업계의 해체, 마을의 축소, 불황, 경제의 부흥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중에 문화센터가 솔선하여 에코 뮤지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최초에 실시되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되돌리는 것, 결국 집단 기억의 수집이고, 주민에게 이곳에서의 생활의 의의를 인식 시키는 것이었다.

우선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부모, 조부모가 옛날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 기억이나 소재를 모으게 했다. 이것들이 기본이 되어 「후루미 지방의 100년의 사회경제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작성되고, 게다가 협회가 만들어 짐으로써 에코 뮤지엄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예전의 공장을 잘 이용하여 전시물의 98%가 기증품으로 구성될 정도로 주민의 협력을 얻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점이 높게 평가 되어, 유럽 박물관상이 주어지고 있다.

산토르 에코 뮤지엄은 벨기에에 있는 석탄의 탄광시설과 탄광마을을 테마로 한 에코 뮤지엄 이다. 폐갱이 된 탄광시설을 전시장으로 삼아 석탄산업을 해설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갱도도 활용하는 오락형 전시시설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광부의 주택도 남아 있고, 현재도 아파트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집 한 채를 개방하여 생활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을 전체로 기억의 수집 과정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전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의식하고 있는 점이 단순한 박물관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8) 대학이 주도하는 에코 뮤지엄

벨기에의 트레뉴 에코 뮤지엄의 특징은 브뤼셀 자유대학(ULB)과의 관계이다. 트레뉴 마을에 폐선이 된 철도가 있다. 이 역을 ULB가 환경 연구소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트레뉴 마을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과거의 낡은 건물에서 산업의 전통을 수집·전시하는 전시시설로서 에코 뮤지엄을 지역과 공동으로 시작한 것이다. 학예원도 대학의 연구자 이다.

9) 재단이 지원하는 에코 뮤지엄

봔데 에코 뮤지엄은 도 전역을 구역으로 하는 에코 뮤지엄인데, 퓨이·도·후성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본관으로 전개한다. 봔데는 프랑스에서도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주민은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본관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는 봔데의 역사가 상세히 해설된다. 그리고 여름 14주간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15개의 자치체로부터 이루어진 퓨이·도·후 재단이 퓨이·도·후의 역사를 재현하는 장대한 야외극을 상연한다. 시네세니라 불리는 이 극에는 650명의 주민이 출연하고 뒤편에는 2,000명 이상의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프로연출가와 배우의 지도, 자연에 둘러 쌓인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는 퓨이·도·후성 이라는 환경에서 퓨이훠레(퓨이·도·후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문화적 모험을 매년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또는 외곡에서부터 매일 1만명의 관객이 밀려오고 있다. 여름이외에 이 극을 맛 볼 수 있도록 이것과 인접하여 만든 퓨이·도·후의 역사테마파크의 매상이 에코 뮤지엄 및 지역의 문화 행정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민간이 행정에 보조를 해주는 특이한 사례이다.

3. 프랑스 에코 뮤지엄 평가

1) 에코 뮤지엄의 관광 자원성

프랑스의 에코 뮤지엄 사례에서 보았듯이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성립된 고유의 문화를 테마로 삼아 전개하고 있다. 그 어느 하나라도 같은 얼굴의 에코 뮤지엄은 없고 또 그 양상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에코 뮤지엄이 살아있는 박물관임을 느끼게 해준다.

지역의 현재를 태어나게 한 산업, 역사, 자연과의 관계 등 지역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테마가 지역의 전통의 샘으로서 파헤쳐 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자원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의 전통이 중요시되고 있다.

에코 뮤지엄에서는 지역의 문화나 지역 성립의 원천에 접할 수 있고, 지역을 길러온 지역주민의 전통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협회나 자원봉사자 그룹이 개재하고 그 전통에 자긍심을 갖는 주민들을 만나 교류할 수가 있다.

관광객에 있어 에코 뮤지엄은 관광의 대상이 된다.

2) 에코 뮤지엄의 환경문화 창조

지역주민에 있어 에코 뮤지엄은 협회라는 단체가 다양한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지역 문화의 유지·창조의 활동의 장이고, 환경문화의 학습의 장이다. 물론 평생 학습의 장이고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장이다. 이것은 환경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는 박물관이고 학교 인 것이다. 또한, 관광객에게 있어서도 에코 뮤지엄을 거울삼아 자문화를 재인식 할 수 있다. 이문화 이해를 통한 자문화 이해의 장치인 것이다.

3) 에코 뮤지엄의 지역 공헌

에코 뮤지엄 내방자는 지역의 본관시설이나 본관 등 입장료를 지불 하거나, 그것으로 연기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비를 지불한다. 또한 상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지역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고, 호텔에 숙박한다.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에코 뮤지엄 방문객들은 자기들의 일상과는 다른 생활양식이나 지역유산을 가지는 문화권에 들어와 이문화를 접하고 신선한 놀라움과 감흥을 얻는다. 그들의 시선에 따라 받아들이는 쪽인 지역주민은 자기들의 문화를 깨닫

고 또 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여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에코 뮤지엄에 의해 자극을 받은 관광객은 지역에 역으로 수익 창출로 환원된다.

에코 뮤지엄은 현대의 관광객이 바라는 관광지 만들기, 개성적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지역 만들기에 공헌하고, 그 때문에 몰려오는 관광객에 의해 재충전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환경문화를 창조해 가는 장치인 것이다. 「전통을 먼저」라는 프랑스 에코 뮤지엄 연맹의 슬로건은 바로 그 것을 말하고 있다.

4. 이탈리아의 에코 뮤지엄

1) 이탈리아의 에코 뮤지엄 테마 별 사례

장소나 지역 정체성의 보존과 관련된 테마를 주로 다루는 이탈리아의 에코 뮤지엄은 각 지역단체들의 새로운 에코 뮤지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다. 이탈리아 에코 뮤지엄의 변화 과정은 과거의 역사에 그 근본을 두고 있는 보존의 유형과 방법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그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박물관학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전통을 가진 나라인 이탈리아에서 지역유산과 사회를 보존하려고 하는 독창적인 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가. Prail 에코 뮤지엄 The Eco museum of Prail

Prail의 에코 뮤지엄은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에코 뮤지엄의 목적은 계곡에서 폐광산을 둘러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활식광산 탐험과 예전 광산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탐사 여행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에코 뮤지엄은 어린이 방문자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안내자가 탑승한 기차를 이용하여 2km가 넘는 루트인 Prail지역의 흥미있는 모험환경을 가진 활석광산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고, 광산을 홍보하는 뮤지엄과 각가지 다양한 지하 작업장을 경험하게 한다. 샘, 물웅덩이, 폭약창고, 휴식창고 등 1.5km의 여행 후 기차는 채석장에 도착한다.

이후 500m를 밧줄에 의지해 걷게 되면 지하터널에서 다양한 활석광산 기술과 장비를 관람하고, 활석의 역사, 기술적인 진보과정을 보게 되며, 광산의 역사를 통해 토양의 지질학 분야까지도 전시 교육하고 있다.

[그림 5] Prail Eco-museum

나. Usiedei 문화유산 뮤지엄

이 뮤지엄은 Trentina의 학자이며 윤리학자인 Giuseppe Sebesta가 그의 모든 수장품을 옮겨와 1968년에 San Michele all'Adige 지역의 아우구스티누스수도원에 설립하고 Trento 지역자치단체로 변형된 특별지역법에 의해 1972년에 지어진다. Trentina는 민족주의적이고 인류학적인 뮤지엄으로 분류된다. 이 뮤지엄은 산악지역 거주자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농촌생활 문화를 교육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민족주의적인 수집품과 기록을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이 산악지역에 적응한 주민들의 생활기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뮤지엄 내에는 기계적으로 축소된 전통적인 제재소를 마련하여서 방문자 누구든 버튼을 눌러 그 움직이는 모습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혼, 관습, 민속, 재래, 종교, 사냥 등과 같은 테마를 재현하여

과거의 산악지역 거주자의 생활상을 전시, 체험하고 있다.

다. Pistoia마운틴 뮤지엄

에코 뮤지엄 Pistoiese는 넓은지역(15,000명의 지역주민과 420㎢ 면적)에 분포하며 지역사회와 인근 Tuscany Emilia 마을 사이의 산악지역을 연계시킨 것이다. 위 두 지역의 자연유산 자원들은 문화적, 사회적인 삶의 특별한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노동자의 삶의 기록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민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지역에 뿌리를 둔 대중예술과 문화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과 주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곳은 1500년 전부터 철의 대표적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며, Pistoia 주변의 산지는 19세기 중반까지 철 생산의 주요한 곳이었다.

이 에코 뮤지엄의 탐방 루트를 따라 관람하면 각 지역별로 잘 보존된 철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던 많은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예전 노동자의 삶의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진 여행일정에는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대장간이 위치한 Pracchia의 Ferriera Sabatini를 시작으로 출발해서 얼음저장고가 있는 빙하지역 정보지점의 끝에서 그 관람 및 체험은 종료된다.

라. Bentivoglio 농경문화 뮤지엄

전직 농민들과 농민단체 Gruppo della Stadura는 농민문명화 연구의 중심 단체인 Centro economic technologie를 통해 1969년 뮤지엄은 '민족주의적 역사와 그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역사와 문화적인 지식의 증진, 과학, 기술, 산업의 현대적인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에코 뮤지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Bologna 주변 시골마을에서 농부의 삶과 농업과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제공하는 이 뮤지엄은 교육적, 문화적인 활동과 다양한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봄과 여름철에는 회의, 모임, 춤, 축제 그리고 시골의 전통음악 생산을 포함한 문화적 행위와 자극적인 이벤트들로 확대된다. 지역의 여러 초중학교들과 연계한 현장교육, 대학들과 연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 서부 Maiella 에코 뮤지엄

이 에코 뮤지엄은 1996년에 국립공원으로 선포 되어진 Maiella 산악 능선의 북서쪽 능선을 따라 흐르는 Pescara 강의 높은 계곡에 위치해 있다. 산림지대의 지역, 계곡, 강가, 마을과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역 사적과 문화 환경적인 측면들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되었다.

한 때는 지하 감옥으로 이용되었고, 리소르지멘토운동 동안에 고난으로 애국자들이 많이 희생되었던, 16세기 요새에 근간을 두고 있던 이 지역을 추모하기 위해 di Pascara 건축단체는 이 뮤지엄을 만들었다. 전시공간은 전체 계획에 따라 각 테마별로 당시의 생활상과 지역상, 문화 및 농업생활, 종교적인 삶 등의 모습을 비교하며 조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Ozzano Taro의 Guatelli 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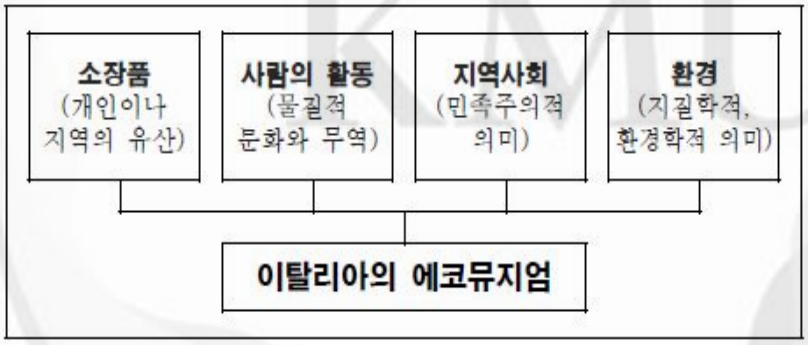
Ozzano Taro의 Guatelli 뮤지엄은 Parma에서 약 15km 떨어진 Collecchio에 위치하고 있다. Museo Guatelli는 자신의 농장내 주택에 지역의 농촌 문명화에 대한 일반적인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는 에코 뮤지엄이다. 지금은 Guatelli 형제들의 개인적인 거주지이며 40,000점의 전시무을 가진 이 뮤지엄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가장 큰 개인 뮤지엄이다.

이 박물관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특별한 장소로, 역사적이며 박물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뮤지엄의 개념보다는 뮤지엄 하우스라고 불려지고 있다 Guatelli는 귀족층들이 해왔던 것처럼 고급 사치품 위주의 전리품이 아닌 수 백개의 일상용품들로 전시물을 구성하였다. 농촌의 생활, 민족주의적 유산이나 기술, 산업 활동 등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뮤지엄은 특별한 장소로서의 축소된 의미로 Museo del Quotidiano or Daily life '일상생활의 뮤지엄'이라고 일컬어진다.

2) 이탈리아의 에코 뮤지엄 특징

이탈리아의 지역유산과 사회의 보존방법을 유럽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발전시켜 왔다. 다른유럽의 나라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이탈리아 에코 뮤지엄은 사람과 생활환경과 특별한 장소의 보존, 주민 또는 지역단체의 투가 및 경제활동에 근간을 둔 체계적인 설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대 에코 뮤지엄에 근간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에코 뮤지엄들이 여러 측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각 뮤지엄의 주체들이 경제적인 활동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최근 이탈리아에는 국토 전역의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뮤지엄에서는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에코 뮤지엄의 구성요소로 추가하여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현존하는 뮤지엄을 재정의하고 에코 뮤지엄을 변형하기 위한 시도를 활발히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림 6] 이탈리아 에코 뮤지엄의 구성요소와 재정의

이탈리아 에코 뮤지엄의 특성은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 과거 대중문화유산의 흔적을 재현해 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뮤지엄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정성들인 유물들을 수집하여 보존해왔던 개인이나 지역단체들의 행동의 결과에서 부각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에코 뮤지엄 형태를 간략이 대별하면 물질문화 뮤지엄과 환경보존 뮤지엄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 뮤지엄이란 이전 산업

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잘 보존된 생산 활동 또는 기술을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특별한 뮤지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개념에서 출발 한 것으로 역시, 경제성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뮤지엄은 생산적인 건물들을 하나씩 복원시킴으로서 발전되기 시작했고, 이후 다른 지역들에서 복원된 제작공장을 네트워킹하여 exnovo를 만들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Val Germanasca Prail 광산 뮤지엄, Todi 와인 뮤지엄과 올리브 뮤지엄 등이 있다.

환경보존 뮤지엄이란 1960~1970년대 부각되던 에코 뮤지엄의 움직임에 환경적인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더욱 증가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개념이다. 보존 유형의 범위는 산업적이며 고고학적인 건물의 일반적인 복원이지만, 때로는 건물에 국한하지 않고 풍경, 지질학, 생태학 등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하여 지역 자체를 특성화 하는 데까지 진행 발전된다.

또한 이탈리아 에코뮤지엄의 또 다른 특징은 관광사업의 활성화의 지역 정체성 강화의 결과로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고, 에코 뮤지엄은 그 관광 사업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자원으로 역할 하도록 계속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에코 뮤지엄은 건물이나 그 장소만이 아닌 주변 환경과 지역을 연계해 발전시켜 왔고 이는 관광객들의 유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이탈리아 지역에서 전통적 뮤지엄 개념이 에코 뮤지엄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시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안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지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Ⅴ. 제주도 에코 뮤지엄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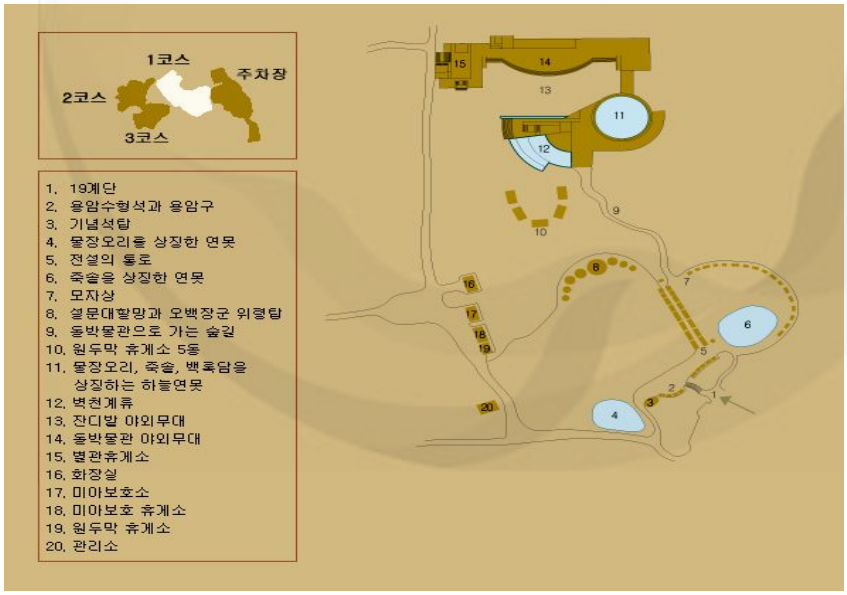
1. 돌 문화공원

1) 시설 내역

표8. 돌 문화 공원 시설 현황표

시 설 명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m²)	동 수	시설 년도
합 계	969,731	969,731	52	2005
돌 박물관	969,731	9,904	1	2006
관리소		160	4	2006
매・수표소		148	2	2006
미아보호소 및 휴게소		150	2	2006
야외 화장실		354	8	2006
휴게소		456	19	2006
돌문화전시관		509	7	2006
전통가옥		400	9	2006

시설 배치도를 코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제 1코스

[그림 8] 제 2 코스

[그림 9] 제 3 코스

돌문화 공원은 제주 형성 전시관, 영상관, 돌 갤러리로 크게 구성되어있으며 암석자료 441점, 전시모형 총 16점(제주지형모형 외 15점), 전시영상 총 9편, 기타19건(정보검색 2, 현미경실습 4 등)의 주요 구성물이 있다.

전시물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형성 전시관이 가장 중요하다. 제주형성 전시관의 각 zone 별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9. 제주형성전시관 구성

구 분	계	모형	암석 시료	영상	기 타	기증품
계	187	16개	144점	8편	19건	24점
1zone 우주와 지구	3	1		2		
2zone 한반도의 지질	39		38	1		6
3zone 한반도의 화산활동	62	2	46	1	서적 13	
4zone 제주의 화산분출물	49		45	2	현미경 2	14
5zone 제주의 동굴	7		5	1	정보검색 1	3
6zone 제주의 오름	11	11			정보검색 1	
7zone 제주의 퇴적물	13	1	10		현미경 2	1
8zone 제주의 지형						
9zone 제주의 지하수	2	1		1		

다음으로 영상관에는 제주의 형성과정 영상이 4분의 러닝타임으로 상영되고 돌 갤러리에는 총 297점(두상석 18점, 용암구 54점, 돌 갤러리 225점)의 돌이 전시된다. 야외 전시장에선 정보 검색대 4대, 연표 3종, 영상 2편, 모형 1식, 재현물 115종, 유물 3498점의 주요 전시물이 있으며 야외 돌 문화 전시관에는 정보검색대 4대, 연표 3종, 영상 2편, 모형 1식, 유물 785점이 전시 되고 있다.

표10. 돌문화 공원 전시관 각 동별 전시물

위 치	전시물	비 고
1동 역사속의 돌문화	정보 검색대 4대, 시대별연표	돌문화전시관 야외 전시 돌 민속품
2동 선사인의 돌문화	석기 52점(22점 복제품)	
3동 고인돌, 제주유적지도	고인돌운반모형1식, 제주유적지도	

위 치	전시물	
4동 돌문화영상	영상2편(역사속의 돌문화17분, 생활속의 돌문화 14분)	665점
5동 생활속의 돌문화	돌민속품 6점, 기능별 연표	
6동 의, 식생활	돌민속품 20점	
7동 주생활, 놀이	돌민속품 25점	
8동 생산, 생업	돌민속품 17점	

야외 전시장의 전시물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1. 야외 전시장 전시물

위 치	전시물	위 치	전시물
선사시대의 돌문화	재현물 7종	정주석	165점
고려시대의 돌문화	재현물 6종, 유물 2점	맷돌	1000점
조선시대의 돌문화	재현물 7종, 유물 81점	말방아	61점
제주의 민간신앙	재현물 7종, 유물 3점	돌하르방	재현 47점
제주의 동자석	125점	방사탑	재현물 10석
잃어버린 석상	재현 28점, 유물 19점	새미물	재현물 1식
기타(입구쪽 전시물)	40점		

전통초가에는 재현물 2식, 유물 1208점 전시되고 있으며 세부 전시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2. 전통 초가 전시장

위 치	전시물	위 치	전시물
이문간 있는 세거리집	279점	훈장묘	재현물 1식
두거리집	276점	연대	재현물 1식

불치막 있는 세거리집	218점	항아리야외전시	400점
비석거리	35점		

2) 전시 내용

'제 1코스'인 야외 공원을 들어서면 19계단을 지나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주제로 한 전설의 통로, 상징탑, 연못, 모자상 등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전설의 통로를 지나 숲 길 따라 내려가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제주 돌박물관이 위치한다. 제주 돌박물관의 옥상은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 내부에는 제주의 형성과정과 다양한 화산활동을 소개하는 제주형성전시관이 있다. 그리고 여러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진귀한 자연석을 감살할 수 있는 돌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돌박물관 내에 위치한 제주형성 전시관은 제주의 화산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공간으로서 우주와 지구, 한반도의 지질, 제주의 화산활동, 오름, 동굴 등 9개의 개별주제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중앙부에는 장축 12m (축척 1:5,700)의 제주도 모형이 위치하고 있다.

돌 갤러리는 화산섬 제주도의 손길로 빚어낸 기묘한 형태의 돌을 아름답게 배치해 놓은 자연석 갤러리이다. 여러 번의 화산활동에 의해 태어난, 다양한 형태의 용암구와 화산탄을 전시해 놓았으며, 거친 비바람이 빚어낸 두상석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전설을 형상화하여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그리고 제주바다 파도에 씻겨 빚어진 자연석에서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추상적인 자연미를 한껏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제 2코스'는 선사시대의 돌문화를 시작으로 초가형 돌문화전시관 8동,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돌문화, 제주의 신앙, 동자석, 돌하르방, 정주석 등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의 돌문화를 포함한 야외 전시공간에는 제주인의 삶과 죽음, 신앙,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돌문화전시관 8동에는 제주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해 온 돌도구 등의 유물이 기능별로 분류 전시되어 있다.

표13. 제 2 코스 전시장과 내용

전 시 장 명		내 용
선사, 탐라시대의 돌문화		선사인들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었던 동굴유적과 사후세계를 보여주는 고인돌과 선돌, 용담동 무덤 유적 재현
돌문화전시관	1동 역사속의 돌문화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돌문화 역사를 연표로 작성하여 전시, 제주의 돌문화에 대한 정보검색대 마련
	2동 선사인의 돌문화	선사인이 사용했던 화살촉, 돌괭이, 돌보습, 갈돌과 갈판, 돌도끼, 공이와 절구 등 돌유물 등을 복제하여 전시
	3동 고인돌, 제주유적지도	선사인이 덮개돌을 묶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과정을 축소하여 모형으로 전시해 놓았으며 제주도 각처에 분포되어 있는 돌에 관련된 유적을 지도로 제작하여 전시
	4동 돌문화영상	제주도의 돌문화를 역사편과 생활편으로 분류하여 2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항시 상영
	5동 생활속의 돌문화	생활 속의 돌문화를 사진과 함께 기능별로 분류한 도표를 제작하여 전시
	6동 의, 식생활	의생활과 관련된 돌도구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위해 사용되었던 식생활과 관련된 돌도구 전시
	7동 주생활, 놀이	주생활, 놀이 기구로 사용되었던 돌도구 전시
	8동 생산, 생업	농업·어업·축산 등 생산이나 생업활동에 사용되었던 여러 돌 민속품 전시
고려시대의 돌문화		고려시대의 사찰유적에서 발견된 돌문화 관련 유물과 왕자묘로 추정되고 있는 하원동 탐라왕자묘, 그리고 동자복·서북자복 등을 재현하여 전시
조선시대의 돌문화		산담이 들려진 무덤 및 제주 돌문화의 상징인 돌하르방 삼사석, 조천석, 회천동 석불 등을 재현
제주의 민간신앙		돌과 관련된 민간신앙을 엿볼 수 있는 석물 전시
제주의 동자석		무덤에 세워지는 평균 신장 1m이하의 작은 석상인 동자석이 전시된 공간
잃어버린 석상		이문교의 사진집『悔恨의 濟州童子石들』(1996)에 수록된 제주동자석 중 일부와 문인석, 돌코냉이, 거북형 받침대 등을 복제하여 전시

제주의 옛 마을을 본떠서 세거리집, 비석거리, 두거리집, 말방앗간 등이 배치되어 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제주의 전통초가를 들여다보며 옛 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제 3 코스'이다.

제주초가는 주위 지형보다 낮은 곳에 돌담을 두르고 건물을 별동으로 배치한다. 안거리(안채) 한 채와 부속채로 이루어진 집을 '외거리집', '안팍거리 두 채의 집으로 이루어진 집을 '두거리집'이라 하며, 안거리와 밖거리(바깥채)가 마당을 중심으로 '二자'로 마주보거나 'ㄱ자'로 배치된다. 그리고 안거리와 밖거리 부속채의 목거리를 포함하여 세 채로 이루어진 집을 '세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 목거리, 이문간 등 네 채 이상으로 이루어진 집을 '네거리집'이라 하며, 안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밖거리, 목거리 등은 마당을 중심으로 'ㅁ자'형으로 구성된다. 제주도의 건물 배치는 육지의 주거건축과는 다르다. 육지는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여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으로 마당의 성격에 따라 건물의 배치가 달라진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대가족이나 실제로는 핵가족인 특유한 가족제도를 지니고 있어서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하는 안·밖거리형 주거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두 세대는 각각 정지, 장독대 등을 따로 마련하고 침식과 생산 경영은 두 단위로 이루어진다. 주거 단위로 보면 한 가족이나 경제적 단위로는 두 가족인 셈이다. 제주도의 주거건축의 기본형이 세칸집이라면 챗방이 있는 네칸집은 완성형이라 할 수 있다. 챗방은 식사공간으로서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시키고 동시에 식사공간의 위생적인 면을 고려하여 분리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3) 관람객 현황

2008년도 월 별 내·외국인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4. 2008 관람객 현황

구분 / 월별	내국인	외국인	계	비고
총계	145,213	1,085	146,298	
1월	6,905	17	6,922	
2월	5,687	14	5,701	
3월	9,791	32	9,823	
4월	18,990	44	19,034	
5월	27,410	68	27,478	
6월	15,419	120	15,539	
7월	6,309	136	6,445	
8월	11,477	74	11,551	
9월	5,478	92	5,570	
10월	13,573	111	13,684	
11월	13,795	257	14,052	
12월	10,379	120	10,499	

위의 표와 같은 관람객 중에서도 2008년도의 주요한 내방객(VIP)은 다음과 같다.

표15. 2008 주요 내방객 현황

월 일	내 방 객	비 고
1. 17	한일해협연안시도현교류지사회의 참가자	
2. 20	베트남 키엔장성 실무회의 참가자	
2. 28	일본 치도세 관광연맹 임원	
3. 27	울산시의회 의원	
4. 24	고창군의회 의원	
5. 21	베트남 키엔장성 성장 일행	
6. 20	중국 절강성 국가세무국 대표단	
6. 27	세계델픽대회 관련 대회	
6. 27	주한 아프리카 세네갈 대사 일행	
7. 3	하와이국립공원소장 방문	
7. 7	한국델픽위원회위원장 일행	

7. 28	연극배우 박정자	
8. 16	전국립중앙박물관장 김홍남 일행	
9. 6	중국공예미술대사일행	
10. 12	멕시코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	
10. 14	국제델픽위원회 사무총장 일행	
12. 25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일행	

4) 홍보

제주 돌문화공원은 개원(2006년 6월 3일)이래 관람객이 손쉽게 공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jejustonepa.com)를 구축하여 외국인도 쉽게 제주의 돌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에는 각 전시관 소개는 물론 현재 조성중인 제주 돌문화공원의 사계절 아름다운 모습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2006년 6월 개원하여 짧은 기간 동안 제주 돌문화공원 도·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여행사에 홍보 서한문을 2회(2008년 5월과 9월) 발송하였다. 2009년도에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비 관광객이 제주를 관광 계획하는 2월과 본격 관광철인 7월에 발송 하였다.

또한, 제주 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공원의 전시구성 내용, 시설이용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전시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시설에 배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5) 자료수집내역

유물은 크게 구입, 기증, 발굴, 발견, 압수 등의 경로를 통해 수집되며 이렇게 수집된 유물은 유물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유물의 수집경로, 특징, 크기, 입수일자 등을 입력하여 전산화 한 후 관리한다. 또한,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에 한하여 일반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으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발급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돌 문화 공원의 기증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도 조천읍 함덕리 김도균님으로부터 자연석 1점, 제주도동굴연구소 손인석님으로부터 석주 1점, 제주검찰로부터 용암수형석 1점, 조천읍 와산리 이성녀 님으로부터 등경돌 2점, 2007년도에 자연과 사랑 권오균님으로부터 연화문양 대형동함 1점을 비롯해 2008년도에 애월읍 유수암리 고원종 님으로부터 분청사기 1점, 총 7점의 기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년도 별 구입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조아각님으로부터 옹기작품 5점(2,000), 김종열님으로부터 전통가옥 고재 5톤(2,700), 인다라·조윤득님으로부터 도조각품 1점(2,000), 황규옥님으로부터 주상절리 3점(2,300), 총 10점을 9,000만원에 구입했으며, 2007년도에는 상지대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암석샘플 53점(9,460), 김남홍님으로부터 설문대 할망 전설그림 25점(5,000) 총 78점을 1억 4천 460원에 구입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는 고운당으로부터 돌구시 4점(1,450), 이조당으로부터 망주석 6점(1,640), 한라 민속관으로부터 석관 외 3점(1,400) 총 13점을 4천 490만원에 구입함으로서 총 2억 3천 460만원의 가격으로 자료를 구입했다.

기존의 소장 자료는 자연석 297점, 돌 민속품 2290점, 민구류 1208점, 기타 144점, 총 3939점이 21.2% 비율로서 전시되었고, 자연석 4345점, 돌 민속품 3084점, 민구류 3885점, 기타 3253점, 총 14567점이 보관되고 있다. 이렇게 보관되는 소장 자료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입이 555점, 무상기증이 17951점, 합계 18506점의 소장 자료가 모두 홈페이지 상에 등록 기재 되었다. 마지막으로 돌 문화공원이 소지하고 있는 전문도서 수집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전에 수집된 도서가 도내 61권, 도외 60권, 총 121권이고 2008년 수집 분은 도내 15점, 도외 22점, 총 37권이며 2009년도 수집 분은 도내 20권, 도외 30권, 총 50권을 보유하고 있다.

6) 조사 연구

돌 문화공원은 꾸준히 제주의 돌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해 마다

그 추진 내역과 연구 성과를 학술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표16. 년도 별 조사연구 추진 및 연구 성과

연구 주제	연구 기간	연구 성과
제주의 돌하르방	2007. 4월 - 11월	-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기획전 개최 (2007. 12. 24-2008. 2. 10) - 「탐라문화」33호 논문개제 : "용중석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제주의 용암동굴[19]	2007.6 - 2009. 6월	- '용암동굴, 그 생성과 변화' 기획전 개최(2008.10.21-2009.2.20) - 「대한지질학회지」제44권 5호 논문게재 : 정밀 측량을 통한 만장굴 용암동굴의 형성과 성장과정에 대한 해석[20]

2008년 10월 31일 제6회 화산학술심포지엄에는 국내학자 5명을 비롯하여 중국 및 백두산, 일본열도, 대만 등에서의 화산활동과 화산 모니터링에 대한 최근 연구 그리고 제주도 남단 가파도 및 마라도의 지질 등이 발표 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지질과 형성사에 대한 50분간의 특강이 마련되어

19) 2007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주의 용암동굴은 제주도 지하에 130여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 연구 결과 제주도 북동부에 위치한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의 만장굴은 3입구에서 1입구 까지의 측정 거리는 4.5km, 지표면의 고도차는 54km이며, 지표면의 평균경사는 0.7°, 용암동굴과 바닥면의 경사는 0.4°를 나타낸다. 1°이하의 완만한 지형경사와 지표에서 채널과 제방의 흔적은 없고, 길쭉한 형태의 압력언덕 등을 고려하면 만장굴 용암동굴을 형성한 용암은 용암천의 형태로 흘러가기보다는 평평한 씨트상의 흐름, 즉 용암팽창과 터짐현상을 반복하면서 흘러가는 용암류의 표면이 굳고 그 아래로 액체상의 용암이 계속해서 흘러 초기 만장굴 용암동굴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만장굴 조사구간의 최대 동굴 높이와 최대 동굴폭의 비를 측정해보면, 그 비가 1:3 으로 높이가 폭보다 크다. 이는 형성된 용암동굴에 지속적으로 용암이 공급되면서 그 바닥면이 내부를 흘러가는 용암에 의해 침식되어, 동굴의 폭보다 높이가 큰 길쭉한 형태로 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장굴의 최하위 바닥면은 평균 0.4°의 경사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구간이 0.7°로 전체적으로 아주 완만하다. 그러나 용암동굴 천정의 높이는 최대 23m에서 최소 2m로 높이 차이가 크고 불규칙하다. 이는 용암동굴의 생성 이후 성장과정에서 동굴의 바닥면에서는 용암에 의한 침식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면, 용암동굴의 천정에는 국지적으로 용암의 부가가 더 우세하게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일반인들이 제주도의 형성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1월 1일(토)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만장굴 및 일출봉 등을 현지답사하고 지질학적 생성과정과 가치를 현장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일　　시 : 2008. 10. 31 (금) 14:30 -11. 1 (토) 18: 00 장　　소 : 제주돌문화공원 영상실 주관 / 후원 : (사)제주화산연구소 제주돌문화공원 학술발표 :　１０명 (구두발표8, 포스터 발표3) • 국외발표자 : 구두발표 5(중국2, 일본2, 대만1) • 국내발표자 : 구두발표 3, 포스터 발표 2

돌 문화공원이 발간한 책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주의 돌문화」- 제주의 독특한 돌문화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책으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별 돌문화 변천사와 생활속 다양한 쓰임새에 따른 제주의 독특하고 다양한 돌문화를 사진과 실명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2006년 발행)

「제주의 문화」전 7 권 - 제주의 생활과 돌, 제주의 신앙과 돌, 제주의 전설과 돌, 제주의 목기, 제주의 동자석, 제주의 옹기, 제주의 정주석 총7권으로 구성하여,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2006년 발행)

「제주사람들의 삶과 신앙」- 현용준 선생이 기증한 제주의 무속관련 사진자료를 엄선하여 전시한 기증유물 전시도록이다. 제주 사람들의 생활속 독특한 생활과 신앙의 면면이 사진자료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2006년 발행)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돌하르방을 전시주제로 한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기획전시 자료집이다. 돌하르방의 기원, 타 지역 석상과의 비교, 옛 사진으로 남아있는 돌하르방의 모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돌의 멋」- 제주 최초의 수석 동호회인 영주수석회 회원들이 소장한 수석 작품들을 초대하여 전시한 영주수석회 초대전 전시도록이다. 제주만 간직한 독특한 지질·자연환경에서 발생한 진기한 형태의 수석들을 감상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의 전설」-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제주의 대표적인 전설인 설문대할망 전설을 널리 알리고자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2008년 발행)

7) 사회·문화 교육

돌 문화공원은 지역주민에게 제주 전통을 이해하고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해마다 구성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 마다 열리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다음 표와 같다.

표17. 년도 별 사회교육 개최 내역

구분	년도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주제
문화체험프로그램	2006	감물염색체험	2006.8	일반인	전통감물염색체험
	2007	설문대할망 전설지 답사	5.6 5.19	일반인	설문대할망 전설지 답사
	2007	감물염색체험	8.6 - 12	일반인	전통감물염색체험
	2008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을 찾아서	1.12, 1.26	일반인	제주읍성 돌하르방 답사
	2008	제주의 돌문화와 지질답사	8.1 - 8.22 매주 금요일	초등학생 (4-6학년)	제주삼읍성의 돌하르방 답사 및 화산지질 싸이트 답사
문화강좌	2007	박물관 기본소양교육	2.7, 2.14 2.21	도내 박물관관계자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현대 박물관 경영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
문화 강좌	2007	설문대할망 전설강연회	5.1, 5.15	일반인	-'설문대할망 전설의 의미와 그 비전' -'설문대할망신화의 현대적의미'

돌 문화 공원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2008년 1월 12일과 1월 26일 총 2회에 걸쳐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옛 위치와 현재위치'라는 주제를 갖고 도내 일반인 67명을 대상으로 제주 돌문화공원 '김정선, 안웅산' 학예사의 안내에 따라 체험 답사를 진행했다. 이 답사는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기획전(2007. 12. 24 ~ 2008. 2. 10)과 연계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의 상징물인 돌하르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유도하고자, 옛 제주읍성 삼문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을 찾아보는 문화답사행사를 실시하였다. 옛 제주읍성 자료를 바탕으로 그 옛 위치를 찾아보고, 현재 위치와 비교하고 그 이동경로를 유추해보는 답사로, 돌하르방의 기능과 기원도 함께 생각하는 행사로 진행 되었다.

2008년 8월 1일, 8월 22일 매주 금요일 마다 총 4회에 걸쳐 실시 된 제주의 돌문화 지질답사는 '제주삼읍성의 돌하르방 답사'를 김정선 학예사가 진행 하였고, '제주의 화산지질 싸이트 답사'는 안웅산 학예사의 진행 하에 도내 초등학생(4~6)학년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의 옛 삼읍성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을 찾아보고 각 읍성의 돌하르방의 특징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화산지형과 지질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빼어난 지형적· 지질적 가치를 가지는 지질 사이트를 답사하였다.

표18. 지질 사이트 답사 내용

날짜	주 제	답사코스 및 내용	답사 안내
8. 1	제주의 돌문화 답사	정의현(성읍)돌하르방 → 제주목(제주시) 돌하르방	김정선 (돌문화공원 학예사)
8. 8			
		제주목(제주시 돌하르방) → 대정현(대정) 돌하르방	
8. 15	제주의 지질답사	만장굴,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안웅산 (돌문화공원 학예사)
8. 22		수월봉, 당산봉, 송악산, 산방산	

제주 돌문화공원에서는 매년 5월 제주민의 꿈과 사랑 그리고 제주의 형성에 관한 재치있고 기발한 상상력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설문대할망 전설을 주제로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2008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에는 조용한 가운데서 설문대할망 전설을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설문대 할망제, 제주 전통음식 체험, 제주 소리 한마당, 돌차회, 다례제 등, 이 외에도 설문대할망 상징탑 쌓기 체험행사가 5월한달 간 진행되었으며, 5월 15일 ~ 31일까지 박물관내 영상실에서는 설문대할망 전설 영상(6분)을 상영하고, 어린이들에게도 쉽게 전설을 접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전설 그림책을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배포하였다.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통해 설문대할망 전설이 제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또한 제주 문화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8) 제주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돌 문화공원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돌과 제주문화에 대해서 논하고 이러한 돌 문화를 중심으로 조성된 돌 문화 공원에 대해 정리 하였다.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신화, 전설, 민요, 종교 등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나타나는 정신문화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기 위하

여 물질을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도구, 건조물, 교통, 통신 등의 물질문화가 그것이다.[21]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특성과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제주의 문화는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생활의 반영으로 돌문화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 물품, 건조물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돌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제주 사람들은 인생은 '돌로 시작해 돌로 끝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태어나 돌을 이용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도 돌로 구성된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 죽어서도 산담이 둘러진 무덤으로 들어가고 무덤 앞에는 돌로 만든 상석(床石), 비석(碑石), 그리고 동자석(童子石)과 함께한다. 제주 사람들이 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의식주 전반에서 확인 된다. 특히 돌을 재료로 삼아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사례들이 흔하다. 제주도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도 돌을 이용했으며, 집 울타리도 돌로 쌓았다. 부엌에서는 돌을 세워 솥덕을 만들고 불을 떼었다. 그 뒤로 돌을 에둘러 재를 모아두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부엌앞에는 '물팡돌'을 두어 '물허벅'을 내려놓기 편하게 하였다.

생산이나 생업 활동에도 돌이 적극적으로 사용 되었다. 농사를 짓는데는 '돌테', '섶돌', '곰돌'등이 쓰였으며, 고기를 잡는 데는 '댓돌', '닻돌'과 같은 것이 쓰였다. 무덤 주위에도 돌을 쌓아 담을 둘렀다. 육지부 무덤 양식과 가장 큰 차이점인 '산담'은 보통 돌을 구하기가 힘들 때 쌓는 형식으로 보통 외담으로 쌓는다. 바다에서도 돌을 이용하였다. 바닷물이 들고나는 지점인 조간대에는 '원'이라는 고기잡이 도구가 설치 돼 있었다. 돌담을 에워 쌓아 만든 '원'은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가두었다가 썰물 때 잡는 장치이다. 원담을 쌓는 법은 안과 밖이 다르다. 바깥쪽은 비스듬하게 돌을 쌓아 고기가 쉽게 넘어 들어오도록 하고 안쪽에서는 직선으로 돌을 쌓아 들어온 고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원담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쌓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했다.[22]

이 외에도 돌의 쓰임은 무한하였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제주 사람

21) 이윤형·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p.210, 제주 돌 문화공원, 2006
22) 제주도 관광 진흥과, 「제주 관광 매뉴얼」, p.7 2003

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돌 문화는 정신적 활동으로 인한 산물로서 다양하고 독특한 제주만의 물질문화 이다. 따라서 제주와 돌문화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돌문화가 곧 제주만의 생활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장 제주도적인 색채를 가지는 박물관을 만든다면 제주의 돌문화를 테마로 한 곳이라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살피게 될 제주 돌 문화공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제주의 돌로 만든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유형의 문화유산과 돌을 소재로 한 정신문화를 집대성 하여 조성된 공간이라 생각한다.

제주 돌 문화공원은 제주의 형성과정과 제주민의 삶속에 녹아 있는 돌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미술관이며 생태공원이다. 그리고 한라산 영실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전설을 중심 테마로 꾸며진 설화의 공간이다.

제주 돌 문화공원은 민·관 공동작업으로, 탐라 목석원이 수집한 1만4천여점의 자연석과 민속품들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북제주군이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100만평의 부지를 내놓아 행정과 재정을 맡고, 탐라목석원은 디자인과 설치를 감독키로 협약이 체결되어 2006년 6월 3일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되었다. 전시는 크게 제주 돌 박물관과 야외전시로 구분되는데 제주 돌 박물관 내부에는 형성전시관, 돌 갤러리가 있으며, 외부에는 돌 문화전시관, 야외 전시장, 전통 초가 마을로 구분되어 있다. 제주 돌 박물관 내에 위치한 제주형성 전시관은 제주의 화산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공간으로서 우주와 지구, 한반도와 지질, 제주의 화산활동, 오름, 동굴 등 9개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중앙부에는 장축 12m의 제주도 모형이 위치하고 있다.[23]

돌 갤러리는 화산섬 제주도의 손길로 빚어낸 기묘한 형태의 돌들을 아름답게 배치해 놓은 자연석 전시장이다. 화산활동에 의해 태어난 다양한 형태의 용암구와 화산탄을 전시해 놓았으며, 제주자연에 의해 빚어진 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추상적인 자연미를 한껏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외부에 위치한 돌 문화 전시관은 제주의 초가형태의 전시관으로 내·외부 마

23) 제주 돌 문화공원 백서, p.14, 2005

감 또한 전통적인 제주초가 모습을 하고 있다. 돌 문화전시관의 경우 각 주제별로 하여 의·식·주, 생산·생업·놀이 등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 하였으며, 역사속의 돌 문화연표와 제주의 돌 문화를 기능별로 나눠 정리한 도표가 전시되어있다. 그리고 역사속의 제주 돌 문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돌을 이용하며 살아온 제주인들의 지혜로운 생활 모습을 담은 영상물을 볼 수 있다. 야외 전시장은 선사시대의 돌문화를 시작으로,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돌문화가 시대 순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독특한 제주의 신앙, 동자석, 정주석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주인들의 삶과 죽음, 신앙,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공원에 들어와 처음 접하게 되는 '1코스'는 19계단~제주 돌 박물관까지이며 관람동선거리는 약 560m, 소요시간 약 50분가량이다. 주요요소는 성곽형 전망대 및 맨발로 산책코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상징탑(위령탑), 돌문화 박물관 이다. '2코스'는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시작하는 선사시대의 돌문화~돌 문화 야외 전시장까지이며 관람동선거리는 약 970m, 소요시간은 약 50분가량이다. 선사시대 돌문화로부터 시작해서 초가형 돌 문화 전시관 8동,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돌 문화, 제주의 신앙, 동자석, 돌하르방, 정주석 등의 전시로 구성되어있다. 야외 전시공간에는 제주인들의 삶과 죽음, 생활,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으며, 돌 문화 전시관 8동에는 제주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해온 돌 도구 등 유물들이 기능별로 전시 되어 있다.

'3코스'는 제주전통초가를 중심으로 마을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람 동선거리는 약 780m, 소요시간은 약 50분가량이다. 제주의 옛 마을을 본떠서 만든 새거리집, 비석거리, 두거리집, 말방앗간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제주의 전통 초가를 재현하였으며, 옛 사람들의 삶을 재구성 해 놓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 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해 놓았다.

2. 해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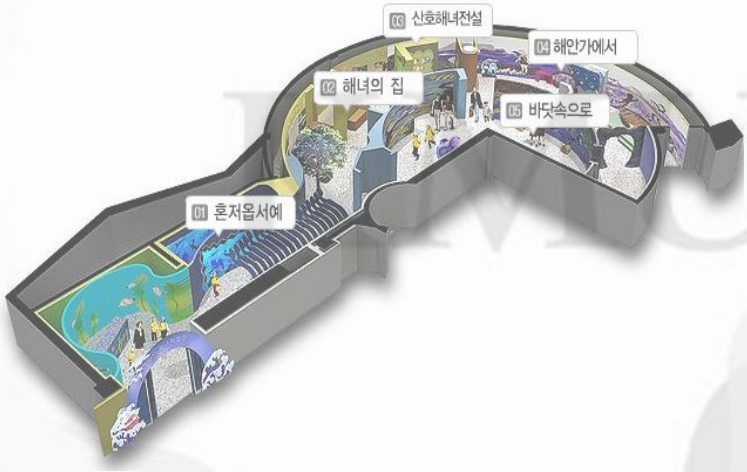
1) 시설 및 전시 내역

제 1 전시실에는 해녀의 삶을 테마 별로 구성했고 제 2 전시실에는 해녀의 일터를 실제 해녀 마을과 흡사하게 재현 해 놓았다. 제 3 전시실에는 제주의 바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바다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활동을 전시하고 있으며 지하의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동선을 따라 해녀들의 어업 활동을 그대로 체험 하면서 체험과 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그림10] 제 1 전시실 - 해녀의 삶

[그림11] 제 2 전시실 - 해녀의 일터

[그림12] 제 3 전시실 - 바다



[그림13] 어린이 해녀 체험관

각 전시실 별 시설의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전시실에는 264개의 자료와 모형 39, 마네킹 3, 설명판 7, 레이블 4개가 있고 제 2 전시실에는 자료 172개, 모형 12, 마네킹 10, 설명판 8, 레이블 9개가 있으며 제 3 전시실에는 422개의 자료, 모형 7, 마네킹 2, 설명판 6, 레이블 12개가 있다. 어린이 체험관은 2개의 자료와 24개의 모형, 11개의 설명판으로 구성되었으며 야외와 로비, 전망대에는 34개의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전시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녀의 삶 - 제1 전시실>
<The lives of Haenyeo - Exhibit Hall 1 >

불턱, 도대불, 방사탑, 원담을 품고 있는 제주어촌의 모습과 세시풍속 등을 살필 수 있다. 해녀의 집, 옷과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 모형 등 의식주 생활 도구를 전시하고 있다.
전시는 해녀의 집, 어촌마을, 영등할망신화, 제주의 세시풍속, 의식주 생활, 반농반어, 제주의 바다로 구성된다.

<해녀의 일터 - 제2전시실>
<Haenyeo's Work Place - Exhibit Hall 2 >

옷을 갈아입고 언 몸을 녹이며 서로 정보를 나누는 불턱과 뱃물질, 테왁망시리·눈·빗창과 같은 작업도구, 전통 물옷인 소중기와 고무옷 등을 전시했다. 해녀에 관한 역사 기사와 어업 공동체인 잠수회, 해녀 항일에 관한 기록과 일제시대 야학당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전시는 불턱, 나잠어구, 뱃물질, 제주해녀, 나잠어업, 어업공동체, 제주해녀 근현대 투쟁사, 출가해녀, 잠수기술, 해녀상, 예술속의 해녀로 구성 된다.

<해녀의 일터 - 제3전시실>
<The Sea - Exhibit Hall 3 >

해녀의 작업장이면서도 해녀 남편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어로문화를 전시한 공간으로, 전통배인 테우를 이용한 자리잡이, 멸치잡이, 고대 어업활동, 구엄 '돌'염전을 관람하고 <해녀노래>와 <멸치후리는 노래>도 들을 수 있다.
전시는 테우, 해녀의 얼굴, 제주민요, 제주의 어업, 고대 어업활동, 구엄

'돌' 염전, 멸치잡이, 한반도의 어업, 포구와 등대, 희망의 바다로 구성된다.

<어린이 해녀 체험관>
<Haenyeo Experiential Center For Children>

어린이들에게 바다물질 작업과 바다 속 체험을 통해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 호감을 갖도록 해녀 옷 입어보기, 물 허벅 등에 져보기, 배타기, 바다 속 해산물 채취 등 다양한 체험 코너가 있다.

전시는 혼저 옵서예, 해녀의 집, 산호해녀전설, 해안가에서, 바다 속 탐험으로 구성된다.

2) 관람객 현황(06 ~ 09)

해녀 박물관의 2996년도의 총 관람인원은 65830명으로서 입장료 총 수입은 24,523원, 기타 수입은 7,069원 이다. 2007년도의 관람인원은 더욱 증가해 166838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70,628원, 기타 수입은 8,575원 이다.

2008년도의 총 관람 인원은 207326명이고 입장료 수입 74,489원 기타 잡 수입으로는 11,303원을 벌여 들였으며, 2009년도에는 210000명이 다녀가고 입장료 수입 73,000원, 기타 수입 12,000원을 올렸다.

도내·도외 입장객의 성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내, 도외 입장객 성향 :

- 도외 388,192명중 어른 48%, 청소년 12%, 어린이 8%, 경로 약29%, 기타(유공자, 장애인 등) 3%
- 도내 86,461명중 어른 31%, 청소년 6%, 어린이 37%, 경로17%, 기타(유공자, 장애인 등), 9%

단체성향 : 단체관람객 145,896명중 어른 약70%, 청소년 약 30%

외국인 성향 : 외국인 10,129명중 일본 7%, 중국 28%, 미국 9%, 유럽 2%, 동남아 49%, 기타 5%

무료입장 : 무료입장객 211,560명중 어린이 30%, 경로60%, 기타(유공자, 장애인) 100%

주요 내방객(VIP) : 2008. 11. 7 주한외교관 및 가족 등 120명 방문

3) 홍보

□ **방송홍보**

2008. 1. 9 KBS1 "제주가 보인다"
2008. 1. 16 KBS2 "KBS 네트" 2008. 1. 16 KBS2 "KBS 네트"
2008. 6. 11 KBS1, "제주가 보인다" - 한·일 해녀 유네스코 공동유산 지정 심포지엄 및 한·일 아마 도구 비교전
2008. 6. 21 KCTV - 문화가 산책
2008. 6. 21 JIBS 8시 뉴스 문화가 소식
2008. 6. 22 MBC 9시 뉴스
2008. 6. 22 제주 콘티비 3회.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 비교전' 관련
2008. 7. 13 KBS 취재파일 4321 방송
2008. 5. 13 ~ 14 KBS 쇼-진품명품
2008. 5. 30 ~ 31 평생학습 축제 참가 체험 프로그램
2008. 7. 독도는 우리땅, 울릉도, 독도 사진전, KBS, MBC, JIBS 등
2008. 8. 해녀노래 CD 중 해녀 항일가
2008. 9. 리얼텔레비전, 교육텔레비전 해녀 관련
2008. 10. 1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KCTV
2008. 10. 3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MBC

□ **잡지 홍보**

2008. KTX 잡지
2008. "해녀의 생업문화 보존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의정』 통권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2008. "해녀의 생업문화를 찾아서 2"『제주특별자치의정』 통권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Culture+Travel (Special Asia Issues)잡지 게재

4) 자료 수집 내역

해녀 박물관의 년도 별 자료 수집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19. 소장자료 년도 별 수집 내역

구분	계	전시					수장			비고
		소계	상 설				소계	수장	수선	
			1실	2실	3실	기타				
2006	2,534	862	295	159	375	33	1,672	1,672	-	-
2007	3,144	860	265	172	397	26	2,284	2,284	-	-
2008	3,408	894	264	172	422	36	2,514	2,514		

년도 별 유·무상 기증 수집품은 다음 표와 같다.

표20. 년도 별 유·무상 기증 수집품 구입 내역

구 분	계	유상구입	무상기증	자체수집	구입금액	비고
총 계	3,408	1,808	1,479	121	219,890	-
2002	278	-	278	-	22,000	기증보상금
2003	1,174	1,117	56	1	55,860	-
2004	115	66	46	3	42,280	-
2005	862	443	370	49	55,860	-
2006	610	50	509	51	34,105	-
2007	105	23	70	12	3,530	-
2008	264	109	150	5	6,255	-

해녀 박물관의 자료 중 15점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12월 3일자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1. 해녀 박물관 자료 15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 10호 지정 내역

자료명	시 대	소장 연월일	소장 경위	출 처	특 징	유물 번호
물소중기 (소중이)	1940 년대말	08.5.14	유상구입	서귀포시 하례리 허병임	재료는 흰색광목, 재봉틀로 만든 것처럼 촘촘하게 손바느질 하였다. 한쪽 어깨끈으로 되어있다.	511037
물적삼	1960 년대	08.8.8	무상기증	조천읍 북촌리 김태매	저고리 보다 길이가 길고 품도 넉넉하다. 무명을 손바느질로 누벼서 만들었다.	511019
물체 (물치기)	1960 년대	06.2.1	무상기증	구좌읍 세화리 고영순	저고리 보다 길이가 길고 품도 넉넉하다. 무명을 손바느질로 누벼서 만들었다.	511019
수건 및 까부리	1970 년대	07.2.12	무상기증	제주시 연동 홍희선	물수건 대용으로 썼던 모자. 목에 넓게 프릴을 달아서 햇빛을 막아주고 보온역할을 하였다. 여름에 쓰던 모자.	512019
족쉐눈 (쌍안경)	1939년	05.4.21	무상기증	한경면 고산리 서명순	안경 테두리는 놋쇠, 눈알이 쌍이다.	514003
쉐눈 (왕눈, 단안경)	1970년	05.8.29	유상구입 (한신화)	제주시 노형동 한신화	1900년대 초기 초기 쌍눈을 쓰다가 쉐로 만든 왕눈을 이용하면서 1970년대 초까지 이용 하였다.	514015
테왁 망사리	1950 년대	1985	유상구입 (제주 특별자치 도자연사 박물관 소장)	조천읍 신촌리 한장만	테왁은 박으로 되어있고 망사리는 신서란으로 되어있다.	3570
빗창	1960년대	05.4.16	무상기증	애월읍 곽지리 박봉옥	전복을 상하지 않게 떼어내기 위해 끝이 둥글고 무딘 편이다. 꼬리 부분은 고무줄 끈을 달았다.	515006
종개호미	1960년대	05.12.23	무상기증	구좌읍 행원리 김영자	미역이나 톳 같은 해조류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낫. 농사용과 달리 날을 손잡이 바깥쪽에 철사로 고정시킴.	515021
호맹이 (까꾸리)	1970년대	05.5.23	무상기증	애월읍 신엄리 고인화	문어, 성게, 오분자기, 소라를 잘 캐낼 수 있도록 만듬. 채취하는 장소에 따라 긴 것과 짧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함.	515015
작살	1970년대	05.5.25	무상기증	한림읍	고기를 쏘아 잡는 도구.	515018

				한수리 홍경자	소살이라고도 함. 쇠촉을 수리대에 고정시킴. 끝은 고무줄 손잡이로 고무줄의 탄력을 이용해서 작살이 나가면서 고기를 잡았다.	
성게체	1970년대	06.4.24	무상기증	구좌읍 평대리 고순희	알미늄 양푼바닥을 못으로 구멍을 냄. 성게체는 불순물은 제거되고 알은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521014
성게칼	1970년대	06.4.24	무상기증	구좌읍 팽대리 고순희	끝이 뾰족하고 짧은 칼. 성게를 반쪽으로 단번에 자르는 기능이 강화된 칼.	521014
질구덕	1970년대	05.5.30	무상기증	구좌읍 행원리 김영자	대나무 바구니. 해녀용품을 집어넣고 이동 하거나, 캐낸 해산물을 넣고 온다. 일반구덕보다 깊이가 깊고 가로가 긴 편이다. 등이 닿는 부분은 누비등바대를 붙이고 밑은 고애기를 받쳐서 구덕에서 물이 새어 나와도 옷이 젖지 않도록 하였다.	220023
눈곽	1960년대	06.8.18	무상기증	애월읍 곽지리 신덕순	물안경을 보관하던 나무상자. 양옆에 홈을 파 뚜껑을 미닫이로 만듬. 상자가 떨어지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눈이 안전하기 위해서다.	514021

5) 개발 계획 및 전망

제주 해녀의 문화의 보전과 교육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총 2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구좌읍 해녀 박물관 부지에 해녀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녀공연을 상설하게 됨으로서 해녀문화를 관광 상품화 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한 해녀문화교육을 개설해 이론과 체험이 겸비 된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해녀문화 교육을 위해 박물관이 위치한 하도리 주변의 유산을 최대한 활용 해 에코 뮤지엄으로 성장시켜 나

간다는 계획이다. 구좌읍 하도리에는 불턱과 해신당, 갯담, 별방진, 마을 밭담, 철새 도래지, 용천수 등의 유산들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해녀박물관은 해녀들의 삶의 정서를 승화한, 제주 무형문화의 대표격인 해녀노래를 엮은 '제주해녀노래집-이여, 이여, 이여도 사나'를 최근 발간했다.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주로 출가물질을 떠날 때 무동력선 노를 저으며 불렀던 노동요로 제주도무형문화제 제1호로 지정, 보존되어 왔다.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역동성과 삶의 한을 해소하는 기백, 결코 포기를 모르는 용기,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해온 철학 등이 읽힌다. 이번 해녀노래 자료집에는 해녀노래 150여 편과 보유자의 생애력 등이 수록된 가운데 제주여성으로서 숙명적으로 겪어야했던 인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노래 내용이 비단 물질 뿐 아니라 인간사와 여성의 시집살이, 자강과 근면, 금전과 기원, 자연과 이여도, 남편과 자식, 신세 한탄 등 폭넓은 주제를 포괄하고 있어서다. 노랫말은 원문과 함께 영문 번역본도 게재되고 여기다 사진까지 곁들여져 다각도로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자료집은 학문과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 아니라 도민정체성의 근간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마땅히 기록·보존해야 할 제주의 귀중한 유산이다.

6) 제주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해녀 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은 도심과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제주 잠녀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공간으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여년 전만하더라도 제주 발전사에 있어 가계와 지역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던 잠녀들이지만 이제는 그 문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더 크다. 그런 잠녀들을 역사와 함께 형성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공간으로 제주해녀박물관이 쌓아온 것은 비단 시간만은 아니다.

개관 이래 3661점의 어촌과 잠녀 관련 민속자료를 수집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어린이체험관과 영상·전시실, 수장고 등으로 이뤄진 4002㎡의 공간은 월평균 1만5799명, 하루 평균 527명으로 북적였다.

해녀박물관은 단순히 자료 수집과 전시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잠녀문화

전승 보전을 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해녀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 해녀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축제이다. 해녀박물관이 자리를 잡아가는 실정에서 해녀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구좌읍 지역이 제주해녀의 대표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 사실 해녀축제는 제주지역 대표축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해녀축제의 시작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제주시, 세화, 사계 일원에서 개최된 해녀축제가 축제의 시작이었다. 해녀 축제는 당 초 탐라 문화제의 일환으로 시작한 행사여서 그 개최시기가 10월 이다. 하지만 이는 축제의 특성상 바다와 관련 된 체험과 프로그램을 많이 연계 할 수 있는 더욱 여름에 가까운 기간으로 개최 시기를 옮긴다면 기존의 보고 듣고 관람하는 축제의 구성을 탈피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3. 문제점

1) 돌 문화공원

조천읍 교래리 일대에 자리 잡은 돌 문화공원은 제주의 '돌'을 집대성 해 제주 문화를 대표하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북제주군 시절인 1999년 1차 사업이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05년까지 411억원이 투입 돼 박물관과 전시시설 등을 갖추고 2006년 3월 개관 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300억원이 추가로 투입해 오백장군 갤러리와 자연 휴양림을 조성 했고, 2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1220억원을 투입해 설문대할망 전시관과 휴양림을 갖출 예정이다.[24]

돌문화공원은 제주의 전설과 돌 문화의 면면, 제주민의 생활상등을 생생하게 소개해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를 찾았던 '뉴 세븐 원더스' 재단 설립자 '버나드 웨버'도 "가장 제주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함과 독특함으로 가득 찬 돌 문화 전시장"이라고 극찬했다. 이처럼 돌 문화공원은 제주도의 가치를

24)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널리 알 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작 관람객 유치에는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 말 까지 돌문화공원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18만8117명에 머물렀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650만8000여 명임을 감안 할 때 많아야 2.9%만이 돌문화공원을 다녀간 셈이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은 1014명에 불과했고, 전체 외국인 관광객(72만8588명) 중 0.14% 만이 돌문화공원을 찾았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현상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관람객은 16만394명, 지난해에는 14만6334명에 불과했고, 외국인 관람객은 각 각 3153명, 2698명에 머물러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0.5%, 0.34%에 그쳤다. 이처럼 돌문화공원이 외면 받는 이유는 사설 관광지와 달리 단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고, 야외 시설이 많아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적인 지원 자체가 부족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인데, 실제 홍보 팸플릿을 만드는 예산은 지원되어 왔지만 홍보 마케팅 예산은 올해 처음 책정 됐다고 한다. 그나마 그 홍보 예산도 1000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을 벌이기 어려운 상태다.[25]

제주도 감사 위원회도 최근 이러한 실정을 심각하게 고려 해 관람객 유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해 시행 할 예정 이라 한다. 이처럼 돌 문화 공원은 다소 인적이 뜸한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고 야외코스를 포함한 영역이 워낙 넓어서 지역주민과의 연결 가능성은 희박하고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행정적 지원 폭을 늘려 규모를 다듬어 나아 갈 것이 아니라 홍보 마케팅 부분의 전면적 투자가 시급하다.

2) 해녀 박물관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해녀 박물관은 도심지에서는 다소 먼 거리이지만 해녀 주거 지역이 밀집하여있어 관람객의 흥미 유도가 용이한 위치에 있으며 해녀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인접해 있다. 2002년 2월 8일~6월 7일

25) 돌 문화 공원 학예사 인터뷰 포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전시관에 대한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소요예산산정 등에 대한 용역을 거쳐 동년 10월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얻고 2003년 8월 5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 23일 건물을 착공하여 2006년 3월 준공하였으며 동년 6월 9일 제주해녀박물관을 개관하였다.

해녀 박물관은 관람객의 접근성은 장점 이지만 전시 컨텐츠 면으로 다소 부족함이 드러났다. 해녀의 집과 어촌 마을을 예전 모습 그대로 재현한 디오라마[26] 전시형식은 제주의 해녀문화가 낯선 관람객의 이해도에 공헌 하였으나 각 디오라마에 따른 부연설명이 부족했고, 제주의 무속신앙과 세시풍속, 항일운동에 대한 전시 테마를 마련하여 그 개요는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스토리텔링이 부족하였다. 이를 위해선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제주 향토문화에 해박한 전문 해설사 양성 및 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전시가 교육적인 소구가 강하기 때문에 오락적인 흥미를 배가 할 수 있도록 전문 학예인력을 고용 하여 상설 전시 이외에도 해녀를 테마로 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획전시를 마련해야 한다.

인근 마을에 향토 음식점 및 해녀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 해 해녀 박물관 주변을 하나의 테마 마을로 만들어 주변과 박물관이 공동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부처가 앞장서서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주고 홍보 해주는 데에 도움을 줘야 한다. 지하층에 마련된 어린이를 위한 해녀 케릭터 삽화 및 모형과 음향장비 뿐 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와 쌍방향 간접 체험 카테고리를 추가 해 교육과 오락적 측면을 만족시키는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어린이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가 구축 된다.

해 마다 열리는 해녀축제의 관람객 의견을 들어보면 다소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먹거리 면에서도 향토음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퓨전요리 및 요리 응용 대회'등을 개최하여 향토 토산물을 증정하는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노래를 지역 어린이를 대상

26) 배경위에 모형을 설치하여 실제처럼 하나의 장면을 연출 하는 것이다.

으로 한 제주해녀노래교실을 만들어서 자료집으로만 기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즐겁게 부르며 어린이들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한다면 해녀 박물관만이 가진 특징적 프로그램화 될 것이다.

1987년 타임지(2004.4.19)에서부터 지난해 뉴욕타임즈(2005.2.15)까지 '제주 잠녀'를 다룬 기사가 비중있게 다루어 졌었다. 아직도 남아있는 토착민들에 의한 원시적 형태의 어업이나 '양성평등'의 상징 등 그들의 시각을 분석하거나 일부 잘못 표현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애써 뒤로 미루는 것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녀박물관의 위치는 보다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녀박물관은 장기적으로 정적인 전시 관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에코 뮤지엄으로 발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뮤지엄 활성화나 전승보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현대·국제적 감각의 제주 민속 재해석, 일본 등 지역 연계를 통한 국제적 명품 박물관 조성 등의 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문제는 '누가', 또 '어떻게'에 있다. 제주도정의 '잠녀 문화의 세계화'공약으로 기대감은 크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축제에 무게감을 싣기 위한 조직 개편이 추진된 만큼 앞으로의 '변화'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라져 가는 것들을 박제화한 공간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문화의 중심으로 해녀박물관을 견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Ⅵ. 제주지역 에코 뮤지엄 발전방안 제시

1. 프랑스의 에코 뮤지엄 개념을 도입한 국내 선행사례

프랑스의 에코 뮤지엄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발전적 에코 뮤지엄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마을을 한 단위의 에코 뮤지엄으로 묶어 통째로 하나의 박물관 역할을 하면서 지역과 공동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보전 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내의 에코 뮤지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90년대 말부터 '살기 좋은 농촌' 운동으로, 잊혀진 농촌을 찾음과 함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그린투어리즘[27]',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농촌 진흥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사업이 수립·진행 되었다.

이제까지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관광에서 벗어나 에코 뮤지엄의 취지에 맞게 보고, 듣고, 대화하고, 맛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의 성공과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잣대를 둘 것인지에 대해 평가 할 것이다.

1) 아름마을가꾸기사업[28]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건강한 자연 및 생태공간·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농어촌 마을의 잠재된 테마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상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테마를 주민 스스로 선정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광역시별 1개 마을, 도별 2개 마을씩 추진하여 현재 총 23개 마을을 대상으

---

27) 농림부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은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1994년 12월에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관광농원을 포함한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진된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사업'이 기초가 되었다.

28) 충북 경제 포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농촌관광 상품개발 방안』, 2002-2호, 2002, 23P~25P

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526억을 마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연차별투자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각 마을별 고유의 특색을 찾기 위해 환경, 전통, 체험, 음식 등 관광체험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마을 진입로, 전통 건축물 등 관광,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마을 복지센터 건설에 예산을 투자하는 마을도 나타나고 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기본 취지나 사업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각 마을별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세부계획이 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잇는 능력을 고취시키는 것 보다 마을의 소득 창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보였다.

또한 마을의 고유 특색을 선정하고 만들어 가는데 있어 그 수요자 대상을 외지인들로 할 것인지, 마을 주민·학생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업비를 투자하고 난 후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하다. 또한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과 세부적인 주민자치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22.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대상마을 현황[29)]

시 도	마을명	일반현황	주요테마	개발방향	주요사업내용
경 기	양평 명달	·70가구 149명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산촌마을	야생화 마 을	야상화 군락 및 임산자원등을 통한 생태관광형 산촌마을	·폐교재활용, 야생화 군락지 조성,표고재배시설현대화
강 원	양양 소래	·50가구, 144명 ·무공해 쌀과 신선한 쑥 등 지역생산물을 이용한 떡 제조로 유명	떡마을	전통 떡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농촌생활체험	·전통떡 공동제조 판매장 전통떡 빚기체험장 ·방앗간, 동물농장 등 생태견학장 및 놀이마당

29)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pas.go.kr/

충 북	보은 구병	·22가구, 49명 ·속리산 국립공원과 구병산 자락에 위치한 산간오지 마을로 법주사 주변관광자원이 풍부	황토보양 마 을	황토와 자연, 약초 등 건강상품 개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황토 찜질방, 황토 방갈로, 황토길 등 황토소재체험시설 ·송로주·영지버섯 등 특산물 가공시설
충 남	서천 합천	·87가구, 236명 ·신지식 농업인 등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팜스테이, 도농교류축제 등을 통해 소득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촌마을	꿈마을	·무공해 유기농산물 재배를 통한 환경보호와 농외소득 증대 ·팜스테이 운영 및 체험농장 설치 등 도·농간 이해증진	·다목적 마을복지센터 ·농부시장 건설 ·마을길 정비,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전 북	고창 도산	·60가구, 149명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고인돌 집략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비교적 많이 보전하고 있는 농촌마을	고인돌 마을	고인돌·당산나무·고가등의 문화유산과 천제·쌍육놀이 등 계승되고 있는 민속행사를 발전시킨 전통농촌으로 개발	·고인돌·당산나무 등 문화유적지 주변정비 ·전통가옥보수 복원 ·상하수도 기반시설
전 남	장성 금곡	·25가구, 66명 ·대규모 조림지가 배후에 있는 산초남을로 영화촬영 장소 등으로 활용	영화마을	넓은 숲을 이용한 청정 휴식공간과 전통농촌의 영화배경 장소 활용으로 주민 소득 창출	·전통초가 및 담장복원 ·관람 및 세트장 조성 ·주차장, 휴게시설 등
경 북	고령 개실	·62가구, 158명 ·김종직 선생 후손들의 집성촌으로 전통가옥이 보전되고 문화유산이 보존된 전통마을	대가야 마을	지산동 고분군 등 가야문화와 해인사·부곡옥천 등 인접 광광자원을 연계한 전통관광 문화 마을로 개발	·전통가옥 보수 복원 및 담장개량 ·가야금 및 세가지 농악 등 민속문화 육성 ·양반문화체험장 및 전통음식점 조성 등
경 남	산청 신촌	·63가구, 148명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산간마을로 무공해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보유	물레방아 마을	물레방아 등 전통민속 자료를 복원하여 전통 농촌과 생태관광 마을로 개발	·물레방아 신촌, 산수유집산단지 조성 ·장승·돌탑·폭포공원 등 관광기반시설 ·상수도·도로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
제 주	남제주 당개	·45가구, 135명 ·표선해수욕장·제주민속촌 등지에 인접한 어촌마을	포 구 마 을	·주변관광지 유입인구를 연계한 관광포구로 개발 ·제주 전래민속의	·제주 전통 떼배의 복원 ·청정양식장, 해안산책로 등 관광기반시설구축 ·마을공동음식점 등 소득증

				발굴 및 재현	대 시설
부 산	기장 임랑	·201가구, 569명 ·기장미역·다시마와 함께 바다와 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마을	파란마을	·임랑해수욕장 휴양기반시설 완비 ·미역,다시마 체취 현장체험, 특산물직거래장터 및 판매장 개척	·휴양기반시설, 정보화 기반시설, 특산물 생산 홍보지원 및 현장체험사업, 해양씨름대회 등 각종 이벤트
대 구	달성 묘골	·23가구, 70명 ·육신사·태고정등 사육신의 역사와 선비문화가 있는 순천박씨 집성촌	충절마을	·역사·문화가 살아잇는 전통농촌마을로 조성, 도시민의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	·전통가옥복원, 기념관·추모광장조성, 주민소득증대 및 마을기반시설 정비
인 천	강화 장화	·50가구, 252명 ·쾌적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일몰경관을 가장 잘 볼 수 이쓴 마을	낙조마을	·갯벌·낙조 등 천혜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 생태·녹색관광마을로 개발	·휴양편의시설, 현장학습 및 생태환경 복원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광 주	북구 금곡	·85가구, 271명 ·무등산 주변의 역사·문화를 느낄수 있는 대도시 인근 농촌마을	무등산 마 을	·무등산을 이용한 사계절 테마여행 프로그램 및 체험농장 운영	·정보화 기반 및 전자상거래망 구축, 생활기반시설, 전래문화 체험시설 등
울 산	북구 금촌	·63가구, 213명 ·동해의 맑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이 있는 어촌마을	레저마을	·산악마라톤, 맨발등산로, 야외결혼식장 등 도시민들의 레저·이벤트 행사 유치	마라톤코스 및 체육시설개발, 설치 생활기반시설, 주말농장, 야외결혼식장 등
경 기	용인 학일	·58가구, 159명	약초관광 마 을	·약초재배단지 및 황토한방원 운영 ·영화촬영지,전통가옥을 이용한 역사관,전통장담그기,어린이 농사체험프로그램운영 등 관광상품 개발	·한방원 신축, 생활기반시설 정비, 농산물생산단지조성, 관광상품·전통문화체험·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강 원	삼척 고무릉	·43가구, 122명 ·삼척시 역사기행코스인 환선굴 지역에 해당하여 연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환선굴연계 관광중심마을	굴피마을	·강원도 산골 전통가옥 및 디딜방앗간 복원, 눈썰매장·자연관활원 등 조성	·전통가옥 및 재래식 방앗간조성, 생활기반 시설, 다목전운동장, 야영장 등
충 북	제천 참나무 골	·36가구, 141명 ·충주호주변의 청풍문화단지와 약초시장 등 한방휴양지로서의 기반을 갖춘마을	참숯마을	·전통 숯가마, 농기구제작소 복원 및 참숯가마 체험 등 건강체험시설 조성	·탐방편의시설, 숯가마 체험장 및 농기구제작소건립, 마을케릭터개발, 임도개설 등
충 남	금산 수통	·62가구, 163명 ·마을주변 금강과 양각산이 있어 조망이 양호하고 젊은층이 많아 마을개발에 의욕이 높은마을	인삼마을	·인삼재배, 약초캐기, 인삼 음식 등 인삼건강체험시설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자연학습장, 주말농장, 생태하천공원조성, 방갈로, 찜질방, 등산로, 삼림욕장 등 조성
전 북	무주 신대	·45가구, 111명 ·덕유산국립공원 적상산 중턱마을로서 단풍 및 설경이 아름다운 마을	산머루 마 을	·산머루재배단지 및 와인공장·전시판매장 조성, 계절별 축제 등 산머루 와인 테마빌리지 조성	·타방 및 생활편의시설, 산머루 재배단지, 습지·저류지 설치 등
전 남	해남 연동	·67가구, 134명 ·비자나무숲·녹차밭, 윤선도고택등 농촌의 아담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	윤선도 마 을	·윤선도고택 등 전통가옥복원, 서당건립으로 한문교육 및 전통시조체험장으로 조성	·전통마을길 정비, 녹우당 등 전통가옥복원, 서당건립, 비자나무숲, 녹차밭정비
경 북	영천 정각	·58가구, 140명 ·보현산천문대입구에 위치하여 자연휴양림조성계획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이 풍부한 마을	천문대 마 을	·천문대자연휴양림 조성계획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별축제, 행글라이더축제 등	·별축제, 행글라이더축제, 생태공원, 숲속교실운영 등 관광자원개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2) 그린 투어리즘[30]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의 자연경관이나 인정과 친절, 전통문화, 체험테마 등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농촌지역에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제반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마을경관을 정비하고 농촌주민들의 경영능력을 향상하며 여가활동에 적합한 농촌마을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대로 알려 농촌여가 생활에 대한 수요를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그린 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2006년까지 국고, 지방비 486억원을 투입, 총 81개 마을을 현재 팜스테이 마을 53개소, 일감갖기사업마을 120개소, 민박마을 266개소, 선진독농가 소재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대상마을을 사전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을 활성화 하기위한 대안으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사업이 주된 목적이 농촌 체험관광 상품을 수단으로 방문객의 수를 증가시켜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에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사업 성공요인으로서 마을과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자칫 주민참여를 경감시킬 우려가 있다. 사업의 성공요인은 그 사업내용과 방향에 대해 주민 모두의 이해오 의견수렴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소득증대를 목적에 두지 말아야 지속적인 농촌 활성화가 가능 해 질 것이다.

표23. 그린투어리즘 사업내용[31]

주 관	사업 내용
농림부 「그린투어리즘」 2001~	**Ⅰ. 개요** □ 그린투어리즘은 유럽·일본에서 농가소득확보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관광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5~10년에 걸쳐 그린투어리즘 확산이 기대됨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체적 관심이 소홀했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중심으로 농외소득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농가 소규모 가공·판매사업의 활성화 추진 필요 **Ⅱ.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확보 방안** **1. 여건과 전망**

30) 충북 경제 포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농촌관광 상품개발 방안』, 2002-2호, 2002, 26P~28P

□ 주 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향후 5~10년에 걸쳐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

◦유흥과 위락 중심의 관광보다는 체험관광·생태관광을 중심으로 한 숙박형 교류형태 관광 증가 전망

□ 다만, 농촌에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여가기반시설 등 하드웨어와 여가·체험프로그램, 비즈니스체계 등 소프트웨어가 미흡하고 훈련된 경영주체도 부족하여 도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취약함 ⇒ 관광객 수용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공급할 경우 그린투어리즘은 관광자원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2. 추진원칙

가. 그린투어리즘의 의의

□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

◦도시민에게는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 공간을 제공

◦농촌에는 농산물 판매(1차), 가공사업(2차), 숙박·음식물 서비스(3차) 등 소득원을 제공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

□ 그린투어리즘의 세가지 측면을 조화시킬 필요

◦농촌주민과 도시민간 도농교류활동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주민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활성화 운동

⇒이를 위해서는 마을과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

나. 그린투어리즘의 상품 컨셉

◦심신의 안락감 : 농촌경관의 치유기능, 인정과 친절

◦농촌에만 있는 것 :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환경, 신선하고 풍부한 농축산물

◦오감을 통한 체험

◦풍부한 체험테마 : 농업체험, 지역심층탐방, 도농교류, 문화체험

◦여행의 효율성 : 접근용이, 장기여행의 베이스 캠프, 농촌패키지투어

다. 중점 확보할 수요층

◦학생, 학부모, 교사층 등의 체험관광수요 적극 확보

◦고령도시노인의 장기체제형 여가활동수요 개발

◦기타 기업과 단체의 연수 등 행사형 여가수요 유치

라. 시책 추진의 기본전략

□ 마을 또는 마을연합을 기본단위로 추진

◦마을이나 일선 시·군의 재량을 대폭 부여

◦마을 단위 사업을 기반으로 권역별로 확대 발전

□ 일반 관광상품과 차별화일반관광과는 구별되는 농촌과 농림업 여가·체험 프로그램, 심층적인 지역탐방프로그램에 중점 -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틈새시장 전략

□ 저비용 - 저투자 전략

◦가동율 15~20% 유지할 경우 사업 타당성 확보 가능

◦인근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

□ 경영주체육성 및 1·2·3차 산업을 연계한 사업체계 구축

□ 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시스템 정비 측면에 중점 투자하면서 하드웨어 정비 병행

◦사업모델을 정립, 시·군 등 지자체의 투자방향 유도

3. 향후추진계획

가. 관련 예산 확보

◦농정국 총괄하에 각 기관·부서별로 진행

나.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협력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 및 순창·장수 등 10여개 선진 시·군 대상

◦타부처 : 다양한 부처간의 협의채널을 통해 그린투어리즘 등 농정 차원의 지역활성화 방안

	제시 ◦ 민간단체, 학계인사, 연구소 등과 워크샵

3) 사례 평가

찾아가서 볼 가치가 있다면 먼 곳까지 가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만큼 현장성을 보다 중시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 현장보존이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이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해 설치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건물 내에 수집된 유물을 마치 철장 속에 가두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방문객은 전시보다는 역사와 유래가 있는 유·무형의 유물 또는 유산이나 지역의 풍광을 보고, 그 지역의 특색을 느끼는 것에 더 많은 호감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의 유산과 유물을 모아 놓은 박물관의 상설 전시된 내용 등은 한번 관람하면 다시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다양한 기획전시는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체험학습 공간이나 첨단전시 방법의 도입 등은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실내전시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보완 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지역 전체 에코 뮤지엄 구축이 필요하다.

4) 지역 전체로서의 에코 뮤지엄 성공 요건[32]

가. 지역주민 주도적 참여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에코 뮤지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필수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나 '그린투어리즘' 모두 지원 대상 마을 선정 과정에 마을 내, 지역 내 합의를

31) 농림부 웹사이트 참조 http://www.mifaff.go.kr/main.jsp
32) 박종순, 박창수, 『관광정책학연구 Vol.6 :생태관광인프라로서 자연사 박물관 건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0 참고인용

기초로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나 마을과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추진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을의 사업계획 수립이나 진행방향이 마을주민의 의견수렴에 국한해 있을 뿐 적극적인 참여가 보이지 않고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주민들이 이끌려 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그린투어리즘'과 녹색여가·체험활동의 형태로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처럼 마을의 주민들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움직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와는 사업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이미 마을의 사업모델이나 지원비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주민 주도에 의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 농가 소득 강조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지역 활성화 노력이 성공할 경우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표9와 같이 모든 사업의 성공여부를 소득증대에만 둘 경우 삶의 가치 추구, 기본 에코 뮤지엄의 역할 등 보다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다.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

지역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 가꾸어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논리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도 안 될 것이다.

지역주민이 수익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긍심이 높아진다면, 수익이 줄어들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고 자긍심이 높아질 때, 지역의 경제활동도 활성화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 주민참여 도출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에코 뮤지엄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원받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계획기간은 터무니없이 짧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그것이 바람직한 주민 주도형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타협점을 찾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짧은 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사업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마. 통합 정책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농촌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때,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지만, 사업에서 제외된 마을은 지속적으로 농촌공동화 현상이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농가 소득의 증대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으로 농촌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표24. 그린투어리즘 마을 성공 사례[33)]

<마을 사례 1 : 경기도 포천 교동마을>

□ 주민수 : 30세대 100여명 (참여농가 6호)
□ 2000년(1년차) 추진성과 : 외국인 40명 포함 851명 방문

수 입	지 출	순이익	순이익율	호당 순이익
14,380천원	3,200	11,180	77.7%	1,863

□ 주요프로그램
◦ 농사체험, 인근 지장산, 궁예성터, 한탄강 래프팅 등 명소 안내
□경험 및 건의 사항
◦ 사심없이 일하는 리더가 있어야 추진가능
◦ 지원요망 : 잔디밭, 가로수 식재, 공동 취사장,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실, 마을회관 개보수, 창고·축사의 용도 전환 등

<마을 사례2 : 경기도 여주 상호마을>

□ 주민수 : 30세대 100여명 (참여농가 5호)

□ 2000년(2년차) 추진성과 : 총 4,800명 방문				
수 입	지 출	순이익	순이익율	호당 순이익
45,120천원	13,460	31,660	70.2%	6,332
□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체계 ◦농촌체험(고구마 캐기, 버섯수확, 메주 만들기, 경운기 몰기, 칡캐기, 연날리기, 팽이치기)등과 지역명소 안내 □ 경험 및 권고사항 ◦프로그램 시설은 수요자가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비 ◦시설은 토속적이면서 위생적이고 편리해야함 □ 지원요망 : 어린이 놀이터, 공동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산책로				

바. 에코 뮤지엄 개념 도입을 통한 지역 유산 활용

프랑스 에코 뮤지엄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속촌이나 공원에 가면 쉽게 물레방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물레방아를 에코 뮤지엄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물레방아 자체만 전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밀을 빻고, 빻은 밀을 받아 관람객이 직접 식당에서 반죽하여 우동으로 조리해 먹는 관람객의 체험을 통해 물레방아의 기능을 이해시키는 참여 학습의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모두 지역주민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밀은 유명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제적 이득도 올릴 수 있다.

즉, 에코 뮤지엄은 지역 주민이 주인으로서 지역유산을 가장 잘 아는 학예원으로서 지역전체를 박물관화 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찾아 가꾸고, 체계적으로 엮어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지역을 사랑하고, 이해하게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코 뮤지엄의 개념을 도입해 지역유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 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공생하는 체계를 확립 할 수 있다.

2. 제주지역 에코 뮤지엄 발전방안

1) 주민 참여 연계

앞서 에코 박물관의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코 뮤지엄을 이루는

33) 농림부 웹사이트(http://www.mifaff.go.kr/main.jsp) 의뢰 후 과거(2000년도)실적 평가 자료 참고

요소 영역과 박물관 활동, 주민의 참여 중 앞으로의 에코 뮤지엄에서 가장 고취 시켜야 할 부분이 지역주민의 참여이다. 에코 뮤지엄은 인근지역의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민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박물관과 마을 공동의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박물관에서 자체운영 프로그램, 기획전, 특별전 등의 홍보, 박물관의 안내, 행사 준비, 박물관 행사 진행시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갖게 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자원봉사자나 지자체 후원의 학예인력 양성 훈련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면 우선 사람들이 동기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급여는 못 받지만 봉사 행위를 통해 봉사자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기대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원봉사 행위의 동기에는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서 지역을 성장시켜 나아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보람과 지역민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를 쌓아 나갈 수 있다는 점, 지역단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민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적 위신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이루어지며 봉사를 통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며 개인 신장 및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점, 직장 혹은 학교에서 관련된 자격이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원봉사 및 학예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동기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주민 참여는 분야별로 광범위 하게 적용 될 수 있는데, 박물관 안내 및 전시 설명을 위한 도슨트 역할로서 도내 국립·공립 박물관 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이들은 전시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관람객들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전시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서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내 박물관을 찾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한 설명의 혜택을 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자원봉사자 양성이 필요하다.

각 박물관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이 소규모 봉사자 그룹을 책임지도 할 수 있게끔 멘토로서 지도 할 수 있는 운영제도 추천 한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와 전문 학예사 봉사자들이 의견 교환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는 방안도 좋을 것 이다.

이처럼 에코 뮤지엄 내 부족한 인원을 대신하여 문화관광 해설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 자체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지역민과 박물관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자체와의 연계

에코 뮤지엄의 가장 근본적인 발전요인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 할 수 있다. 에코 뮤지엄의 발전은 전시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박물관 전문 인력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의 정부단체가 서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즉 그 마을의 특수성에 따라 박물관의 성격이나 범위, 역할과 내용이 달라진다. 실제로 에코뮤지엄의 대표 격인 스웨덴의 '스칸센 박물관'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이나 유산의 보호운동을 펼치는데, 이를 전문가와 정부가 지원 해 주는 게 계기가 되어 건설 되었다.

제주의 에코 뮤지엄은 기존에 설립된 종합적인 주제의 박물관과 차별화를 위하여 특정 주제로 전문화 되었는데, 이는 제주도의 세세한 실정에 밝은 기초자치단체와 지역민 개개인의 참여로 가능하였다. 에코 뮤지엄이 그 주제가 전문화됨에 따라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박물관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시가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박물관 일대의 경관, 관광시설, 자치단체 및 축제 등과의 연계를 지자체가 후원·협력 하고 있다. 에코 뮤지엄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으

로 연결된 살아있는 '진행형 박물관' 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 운영자가 박물관이 갖고 있는 주제의 문화를 효율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협력을 얻어 박물관이 갖고 있는 주체성을 효율적으로 계승 전파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성장 할 수 있다. 에코 뮤지엄의 건설이 단순한 하나의 박물관 건설이 아닌 지역문화에 경쟁력을 심어주고 새로운 지역 문화 사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녀 박물관 인근의 해녀들로부터 전해 듣듯이, '물질'이 그들의 고된 생업이며, 작은 섬 안에서도 그들만의 자문화 이지만 해녀 박물관의 건설로 자랑스러운 전통과 특색 있는 문화로 인정받게 되었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의 탄탄한 문화 정책과 후원이 에코 뮤지엄을 매개로 활발히 이루어지면 에코 뮤지엄 뿐만이 아닌 지역발전이 함께 이루어 질 것이다.

3) 제주지역 산업과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의회는 2009년부터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MICE 산업[34]의 일환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테마파티, 팀 빌딩, 이벤트, 공연기획 등 관광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1개의 상품이 개발 및 후원 되었고 에코뮤지엄인 서귀포의 '석부작 박물관' 또한 관광협의회의 후원 하에, 석부작과 야생화를 테마로 한 테마정원관람과 4000 여장의 올드팝 LP가 있는 음악감상 공간, 방송인 김기덕을 초빙해서 7080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음악과 가든파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제주도 내 농협과 관광협회는 협력하여 농촌·생태마을 체험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집을 제작 한 후

34)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MICE산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관광산업과 다르다. 즉 기존 관광이 B2C(Business-to-consumer)라면 MICE산업은 B2B(Business-to-Business)다. 이렇듯 기업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MICE산업 부가가치는 일반 관광산업보다 훨씬 높다.

전국단위의 농협에서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 박물관, 안보 박물관을 후원하기 위해 도내 역사교훈여행(Dark Tourism) 자료집을 발간 해 도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교육적인 역사의 가치를 재창조 할 것이다.[35]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테디베어뮤지엄과 소리섬 박물관 앞 도로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자연친화 공원 및 데크, 벤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벤트 개최 장소로 활용 계획안을 발표했다.[36]

도내의 에코 뮤지엄이 세계자연유산등재, 유네스코 지정 7대 자연 경관으로 선정 된 제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관리하고 널리 알리는 데에 도내 친환경 우수기업과 손잡고 그 홍보를 도맡아 에코 뮤지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축제와의 연계

제주도는 매년 가을 탐라 문화제라는 제목의 향토 문화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해녀박물관은 박물관 일대 지역에서 다양한 해녀의 생업과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의 축제마당을 마련하였고 제주해녀 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대·내외에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해녀양씨 영화관람회, 길트기 걸궁, 잠수여왕 선발대회, 해녀민속예술공연가 열렸고 부대행사로서 지역 인근 향토 음식점과 전복죽 및 각 종 해산물 요리 장터와 어린이 바다 글짓기 대회를 열어 지역 어린이의 참여도 가능하게 했다. 관람객은 축제를 통해 해녀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박물관 관람과 함께 제주도민과의 소통도 누릴 수 있었으며 박물관이 마련한 행사로 지역 일대가 홍보효과 및 수익창출을 누렸다.

2011년 '웰빙·불로장생'을 테마로 기획 된 서귀포시의 대표 가을 축제인

3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 2010년 주요업무 추진 기획안 발췌
36)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홍보 마케팅 추진 방안 프레젠테이션 인쇄물 발췌

‘칠십리 축제’에서는 축제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서귀포 지역 에코 뮤지엄 투어를 기획 하여 관광 해설사와 프로그램 신청자가 함께 올레 길을 걷고 축제를 감상하면서 미술관·박물관을 둘러보는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에게 시내에 인접한 크고 작은 박물관을 홍보함과 동시에 서귀포시가 갖는 생태 친화적 환경을 홍보 했다.

관광지가 밀집한 중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의 후원 하에 7개의 테마 페스티벌을 기획 중이다. 1월은 바다 펭귄 수영대회, 5월은 야외 음악 대향연, 7월은 중문 해변축제, 8월은 단지 기념일 축제, 9월은 올레길 걷기 대회, 10월은 중국 음식 축제, 11월은 칠십리 축제를 유치해서 중문관광단지를 페스티벌 거리화 하여 관광객 유인효과를 극대화 할 전망이다. 축제를 유치하면서 관광시설 및 테디베어 뮤지엄, 여미지 식물원,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트릭아트 뮤지엄, 소리섬 박물관 등 사립박물관과 판촉 시스템을 통합 하여 공동 홍보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라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브랜드화 하여 도내의 박물관의 성장과 지역관광산업이 동시에 육성 되도록 협력 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공동 브랜드 네트워크 마케팅의 도입

제주도 내의 박물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박물관들을 공동 브랜드화 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박물관들이 함께 제휴를 통한 서로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세계자연문화유산이라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각 박물관과 함께 연계하여 공동 브랜드로서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에서는 우선 지역의 학교, 회사, 기업들과 연계하여 단일 주제의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박물관 간 끼리 서로 연계해 제주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박물관으로 만들고 그 테마를 세분화 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도에는 박물관 협의회가 운영 중 이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해 이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있어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제24조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영세한 사립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경비를 보조하여 제주지역 전체의 박물관 자료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브랜드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된 제주의 아름다움과 청정 이미지를 지역의 박물관과 함께 접목시켜 테마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제주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이를 통해서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브랜드로서의 통합은 제주도의 문화와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박물관들이 함께 공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박물관 사업은 제주라는 지역을 떠나서 세계로 진출하여 세계의 잠재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핵심 문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지역 에코 뮤지엄 구상

1) 제주 어린이 향토 문화 스테이

가. 기본 방향

에코 뮤지엄이란 앞서 정의 한 바와 같이 산업자원,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한 지역 안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연·문화유산들을 종합적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기본은 환경주의, 생태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운영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일상 속에서 산업, 환경과의 소통을 중요시 한다. '그린투어리즘'과 '아름마을가꾸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었던 관광요소의 도입을 지나치게 경제적 부의 성장과 동일시 보는 면을 최소화 하면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 하고자 한다. 에코 뮤지엄의 정신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의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제주 특유의 지역색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단지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제주는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여성중심의 삶의 터전이 구축된 곳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지형 탄생을 토대로 육지부와는 차별적인 지역특색이 뚜렷한 곳이므로 이러한 제주의 자연·문화유산을 지역민의 주도 하에 지역민과 관람객들이 모두 함께 몸소 체험 할 수 있는 체험단지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는 자문화의 색이 뚜렷한 제주도만이 창출 해 낼 수 있는 에코 뮤지엄으로서 관광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조성된 단지 안에서 생활 하듯이 체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서 계획 될 에코 뮤지엄이 하나의 체험 교육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나. 추진 방안

개발의 흔적이 미비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깃든 장소에 옛 제주의 주거환경을 재현 한 마을 단지를 조성하여 제주만의 문화와 환경, 역사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제주 향토 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어린이와 타 지역 어린이가 함께 체험 가능하다. 성공적 선행 사례로 산사에서 생활하며 치유와 문화를 경험하는 템플스테이(10년-100만명의 성과)를 들 수 있다. 공간 구성은 올레 길과 인접한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을 지정하여 외관은 옛 제주 전통 초가집 양식으로 짓고 이 외에도 논과 밭, 동물 사육장을 만들어 하나의 부락을 조성 한다. 이러한 제주 마을을 재현한 단지는 교육 된 인근 지역민을 인솔자 및 관리자로 두어 운영 하도록 하며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어린이 신청 지원을 받도록 시스템화 한다.

다. 체험별 테마프로그램 구상

표25. 제주 어린이 향토 문화 스테이 프로그램

제주 어린이 향토 문화 스테이	
프로그램명	**내 용**
제주어 교실	제주 고유 방언인 '제주어'를 제주어 해설사와 함께 공부하고 이를 체험 기간 동안 사용한다. 생활 하면서 가장 '제주어'를 많이 사용한 학생에게 '제주어 으뜸상' 및 제주 농·특산물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올래 길 명상과 산책	자연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올래길을 체험해 본다. 제주의 자연형성과, 지질대, 각종 야생 동·식물에 대해 알고 호젓한 자연의 품에서 명상으로 산책을 마무리 한다.
향토 요리 체험	보리빵, 빙떡, 몸국 등 제주의 향토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제주의 건강한 농·수산물을 이용해 퓨전향토음식을 창작 해 본다.
승마 체험	제주 말(조랑말) 체험.
제주 오름 투어	자연해설사와 함께 하는 제주 오름 투어.
고사리 따기	인근 논과 밭에서 제철 채소를 수확 해 본다.
천연 비누 화장수 만들기	천연 재료를 이용한 미용 비누 만들기. 제주의 말기름을 이용한 화장수 만들기.
분재 작품 만들기	제주의 화산석에 제주의 야생란을 착근 시켜 작품 만들기.
흙돼지 바비큐 캠프 파이어	제주의 흙돼지 바비큐 파티
천연 염색	독특한 제주의 옷감인 갈옷을 직접 체험 하고 입어본다. 체험 내내 입어보며 갈옷의 장점을 몸소 경험해 본다.

위의 표와 같이 테마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본다. 소멸위기에 처한 제주만의 독특한 지방어인 '제주어'와 충분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연 해설사 모두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교육 권한이 주어진 지역주민이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다른 프로그램 모두 지역주민이 함께 하여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문화에 대한 지식과 긍지, 자부심을 심어준다. 체험하게 되는 제주산 농·특산물 홍보하고 제주도의 각종 산업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익과 연결 되도록 한다.

이러한 테마로서 지역민은 제주에 대하여 더욱 아끼고 보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타지역 방문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며 회자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에코 뮤지엄이 매개가 되어 제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존할 수 있다.

라. 기대 및 효과

- 제주도의 자문화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서 사라져가는 향토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보존 가능 하다.
- 제주 지역만이 지닌 고유 정체성을 확립 해 관광문화 상품으로 발전 시킬 수 있다.
-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도민과 함께 운영함으로서 애향심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 하다.
- 청정 자연지역인 제주의 이미지를 더욱 널리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체험단지 운영을 통해 제주도가 우리나라 『Eco - Education』의 선구도시가 될 수 있다.

2) 제주 축제 발전 방안 (Stepping Stone Festival)

가. 기본 방향

축제나 이벤트가 잘 개발 된다면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경제효과는 엄청난 경우가 많다. 독일의 맥주 축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토버 페스트'는 매년 평균 600만명의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뮌헨으로 몰리고 있으며 1993년 축제로 벌어들인 수입만 하더라도 약 1백억 마르크 수준으로 1993년 우리나라에 전체 외국관광객들이 쓰고 간 관광 지출의 약 2배 수준이다.[37]

대형축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지역축제의 경우도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의 예술적인 관광유인물을 통한 시의 관광수입은 무려 8천 8백만 달러에 이르며 그 중 미술·공예 및 각종 축제로 인한 이벤트 수입이 총 관광수입의 38%를 차지한다. 예술 이벤트 참가객 중 약 26%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이처럼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매력으로 창출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

37) 이광희,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관광개발」, 한국관광학회, 1994

술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한다.

작년 제 8회 차를 맞이했던 '스테핑 스톤 페스티발'은 제주에서 처음 출범한 인디음악 축제이며 제주 이전 기업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주)NXC, (사)곶자왈 사람들, (사)제주대안 연구공동체, (주)지티 일렉트로닉스가 후원한다. 지난해부터 이 축제는 제주의 허파인 생태 숲 '곶자왈'을 지키자는 캠페인성 '에코페스티벌'로 한단계 도약했다.

절약·재사용·재활용(Reduce·Reuse·Recycle)의 '3R'을 적용해 무대를 꾸몄고 축제 현장에선 친환경 마켓이 펼쳐졌으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현장 기부를 받아 그 기부금을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전달했다. 이러한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추진 방안과 발전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구상해 보고자 한다.

나. 추진 방안

기존에 제주에서 행해지던 홍보 · 관광성 축제와는 달리 청정의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느끼고 인간의 순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연과 음악이 인간과 하나 되는 축제로서 축제의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통해 문화적 · 사회적인 운동까지도 병행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축제와 제주 환경 및 지역보전을 지속 가능하도록 알리는 캠페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을 기존에 열렸던 곶자왈처럼 매 회 제주의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으로 지정 축제와 함께 지역문화 유산을 알리는데 일조한다. 재활용 예술품 및 재활용품 벼룩시장, 유기농 청정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직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에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에코 뮤직 페스티발로 브랜드화 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축제 지역 인근의 숙박업소 관광지와 연계하여 할인을 하거나 패키지 상품으로 엮는 등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여 제주의 농·특산품의 우수한 질을 널리 알리고 마(馬) 가죽 및 천연 염색, 올레 길의 주력 상품이 된 재활용 천이 주재료인 간세인형 등 지역 공예품과 아마추어 공예 아티스트들이 '벼룩시장'이나 '예

술 마당' 등의 체험 및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지고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축제의 애프터 파티를 지역의 카페나 음식점과 연계하여 지역 상인은 축제를 후원하고 상인 또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축제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모아서 콜라보레이션 앨범을 제작하거나 축제 영상물을 제작하여 수익사업화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제주지역에 환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 페스티발의 주된 테마가 인디음악 인 만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적극적인 SNS 홍보 활동으로 젊은 층과 감성을 공유하며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홍보를 지향한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축제나 제주지역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제 참가자들의 문의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준다.

해 마다 공연했던 영상물이나 미디어 파일도 공유가 가능해 어떠한 홍보보다도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만족 시킬 수 있다.

다. 체험별 테마 프로그램 구상

표26. 제주 스테핑 스톤 페스티발 프로그램

제주 스테핑 스톤 페스티발	
프로그램명	**내 용**
에코 아나바다	참가자들의 개인 소장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물물교환도 할 수 있는 에코 벼룩시장 이다.
에코 공예마당	제주 지역에서 나는 자원을 이용한 공예를 전시하고 실시간으로 제작하여 판매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아마추어 공예 아티스트들의 장을 마련하여 도움을 준다.
자연 체험	아티스트와 팬들이 모듬을 나누어 제주 청정 올레 길을 트레킹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청정 음식잔치	제주 지역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다양한 유기농 특산물로 향토요리와 현대화된 퓨전 향토요리 판매 부스를 만든다.
명상음악	청정의 제주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명상을 통해 고단했던 몸을 정화하고 심신을 힐링 하는 '치유음악프로그램' 이다.

라. 기대 및 효과

축제를 통해 제주지역의 청정 자연유산과 음악을 하나로 묶어 '에코뮤직 테라피 페스티발'이라는 하나의 문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지역 산업기관과 영세 지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축제의 수익이 지역민에게 환원 될 수 있게 하고 축제의 취지처럼 기부금을 통해 제주지역 자연문화 유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기부금의 활용 내역을 매 회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제주를 홍보 할 수 있다. 축제의 타겟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한번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매 회 거듭 재 참가 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지자체의 후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자체의 후원과 지역의 젊은 문화 예술 종사자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책적 후원과 지원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스테핑 스톤 페스티발'은 제주를 떠오르면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 될 수 있는 하나의 페스티발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

Ⅶ. 결론 및 시사점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한 형태로서 생태관광이 주목 받고 있다.
생태관광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자연보호 분야와 관광산업 분야의 쌍방에서 관광자원으로서 '자연'이 새롭게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태관광의 가능성은 자연보호의 수단이나 고유 민속 문화의 계승,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서 논의 되고 있다. 또한, 생태관광은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수단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생태관광 개념의 발전과정은 지역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생태관광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생태관광의 실천이나 생태관광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된다.

생태관광에서는 '지역주민의 관점'이 중요시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외부사업자, 연구자가 생태관광 컨텐츠의 주된 주체이며 해당 지역 자연, 생활, 문화, 생태가 귀중한 가치를 지니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태관광 요소로 성과를 상승 시킨다.

국제적으로 그 독특한 자문화와 빼어난 자연경관을 인정받고 있는 제주도는 이러한 생태관광의 보고이다. 19코스의 올레 코스를 비롯해 생태의 보고 곶자왈, 해안가 등의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이 관광의 주를 이루며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생태관광에 에코 뮤지엄의 기여도가 높아가고 있다.
제주는 38개의 등록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천국이다. 타 지역에 비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주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제주도적인 색채를 가지고 '지역문화 연구와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관광지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그 중에서 자연과 민속 문화와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에코 뮤지엄이 박물관 관광산업 중심에 있다.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지질대 특성으로 독특한 돌문화, 섬이라는 지역 특성 상 해안가를 중심으로 군락을 이루며 생업을 위해 물질을 하던 제주의 해녀, 따뜻한 기후로 인한 열대성 과일인 감귤, 야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자연환경 등의 독창적인 자문화를 에코 뮤지엄이 그 매개체가 되어

제주도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자체 및 단체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받아 효과적으로 관람객을 동원하고 소통함으로서 제주 생태관광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성장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에코 뮤지엄의 컨텐츠를 질적으로 성장 시킬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도 시급하다. 에코 뮤지엄은 '주민 참여형'이라는 점이 종래 박물관과 가장 큰 차별성을 두며 이는 앞으로의 뮤지엄이 지속 발전 가능한 테마이기도 하다. 기존의 박물관은 폐쇄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전시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구성된 전시관람 동선을 따라 관람하는데 반해, 에코 뮤지엄은 개방된 공간 속에서 관람객 스스로가 자유롭게 관람 동선을 창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관람객이 박물관의 일부이며 전시기획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에코 뮤지엄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관람객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 하며 관람객을 소비주체가 아닌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담당하는 주체인 생비자로 전환 시키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에코 뮤지엄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유산과 유물들을 그곳의 후손들이 가꾸고 보존하고 전승케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에코 뮤지엄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은 문화 유산과 자연환경물의 탄생과 성장 배경의 서사를 이해·습득하기 위해 통사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 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민참여형의 에코 뮤지엄이 지역민들과의 공생에 그치지 않고 널리 확산과 발전되기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과 정부주도형 또는 제주 지역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관광 해설사 양성을 육성시켜 엔터테인먼트가 가미된 교육 생태 관광으로서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자연경승지와 인접한 에코 뮤지엄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잘 유지하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물의 진열이나 전시라는 기본적인 틀을 넘어서서 실내 체험형, 현장 참가형(답사 또는 실제체험) 박물관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제주적 특성을 바탕으로 신설하는 박물관의 주제에 맞게 여러 흥미로운 장르와 복합적으로 결합 시킨 테마박물관을 건립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박물관의 전시물을 무한히 교체할 수 없는 일이며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제주와 제주의 박물관은 문화행정기관, 국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지역문화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험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컨텐츠 적인 측면에선, 야외분관(실외 현장)을 활용·연계하는 박물관으로 변화해야 만이 새로운 유인요소를 배치 할 수 있고 제주 소재의 에코 뮤지엄으로서 존재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 때 제주 관광문화의 꽃으로서 성행했던 들불축제가 나라에서 지정을 받지 못하자 소강해졌고 존재가 잊혀졌다. 다시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측면에서 지자체, 지역 산업기관, 지역주민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주민과 외래 관광객에게 대한 보다 수준 높은 문화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문화에 긍지를 갖고 교류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에코 뮤지엄이 지역 유산의 현장 보존과 상호 네트워크, 지역 유산을 활용한 지역의 홍보 및 지역 산업의 부흥,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보호단체와 정부, 박물관협회 측은 에코 뮤지엄 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 마인드와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 여건을 신장 시키려는 노력으로 제주지역 에코 뮤지엄 활성화 발전에 기대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서귀포시, 한겨레신문사, 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의 비전과 전략』, 2004
이후석, 이홍규, 오민재『신 관광과 지역사회』, 기문사, 2004
이후석,『생태관광』, 2001
이영균,『beseto-한국에서의 에코뮤지엄 도입과 적용성 검토』, 2010
이윤형, 고광민『제주의 돌문화』, 제주 돌 문화공원, 2006
오하라 가즈오키,『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 에코 뮤지엄 기행』, 아르케, 2008
제주특별자치도 민속 자연사 박물관,『제주 문화의 이해』, 2008
제주 발전 연구원,『제주 발전 연구 제 12호』
최석호,『관광학 연구 32권 1호 :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과 제3의 길로서 네오 투어리즘』, 2008
최병식,『뉴 뮤지엄의 탄생 : 박물관 미술관 학』, 동문선, 2010
한국관광공사 단행본,『네오투어리즘 이론체계 정립』, 2007
현홍준・서용건・고계성,『탐라문화 37호-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8. 30

석사학위논문

김한도,『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개발』, 서울대 대학원, 2007. 9
김계담,『제주지역 문화관광마케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탐라 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 2003
김영숙,『에코 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5

신현요, 정진주, 최효승,『이탈리아지역의 에코뮤지엄 사례와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2004. 2
양선아,『지방의 문화관광과 지역 정체성의 재구성 :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1999
오일환,『중국의 에코뮤지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6
윤기혁,『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2008
유승우,『충북 녹색농촌체험 관광마을의 육성 과제와 방향, 충북열린농정협의회 · 충북농정포럼 공동세미나』, 2002. 7
최병길,『탐라문화 34호 :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제주 돌 문화공원에 대한 중요도 만족 분석』, 2009

학술지·행정 관련 책자

농림부,『그린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및 정책 도론회』, 2001, 6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11. 4. 25
박종순, 박창수,『관광정책학연구 Vol.6 :생태관광인프라로서 자연사 박물관 건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0
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계획안』, 2009
신대곤,『삶과 문화 : 제주소재 박물관의 문화적 의의』, 2004, 9,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박물관 운영부『2009년 연보』, 200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10년도 관광 정책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11년도 관광 정책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2009년 관광진흥 전략 보고회 총결산』, 2009
제주도박물관협회,『제 3회 제주도 박물관인 대회 및 제주지역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모색에 대한 워크샵』, 2007
충북 경제 포럼,『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농촌관광 상품개발 방안』, 2002-2호, 2002
한국관광공사,『중문관광단지 홍보 마케팅 추진 방향』, 2010

한국관광공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1997
한국관광공사, 『생태관광 개발방향과 전망』, 1997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참고 기관 · 웹사이트

농림부 (http://www.mifaff.go.kr/)
돌 문화 공원 (http://www.jejustonepark.com/)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석부작 박물관 (www.seokbujak.com/)
제주 관광 공사 (http://www.ijto.or.kr/)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 (museum.jeju.go.kr/)
제주 대안 연구 공동체 (www.jejuin.org/)
제주 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http://www.tamla.or.kr/)
평화 박물관 (http://www.peacemuseum.or.kr/)
해녀 박물관 (http://www.haenyeo.go.kr/)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신문

강재병 기자, 『제주일보-가장 제주다운 돌 문화공원 관광객 발길은 정말 뜸하다』, 2011년 10월 8일
김정호 기자, 『제주의 소리-'하도리 마을 전체를 박물관으로' 해녀문화센터 건립』, 2011년 12월 18일
제주도정뉴스, 『제주 해녀들의 삶, 노래로 승화 -'제주해녀 노래집' 발간』, 2010년 04월 27일

Abstract

Jeju has formed unique culture such as stone culture and Haenyeo (female diver) on the basis of volcano geological features and seashore based life history. Furthermore, its image of international eco-tourism city with clean nature has been high thanks to the appointment of world natural heritage, world geological park, and major 7 natural landscape of UNESCO. Museum belongs to cultural and tourist resources in hits type in tourism resources. Since 1990s old mass tourism was integrated with the concept of culture and tourism, and cultural tourism began to introduce as an alternative tourism in which spectators becomes a subject of participation. It is safe to say that Jeju has the heaven of museums for its 44 registered museums as of 2011. Together with unique relics and clean natural environment, museums in Jeju have high potentiality as 'eco-museum' which is the virtue of modern museum. Eco-museum began in France in 1960s to reconstruct local economy as a cultural policy of a nature park. It is a future of museum industry in that it covers not only natural environment but also comprises various 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 industrial resources, local residents and villages enabling to view local relics holistically, conserving them and achieving income increase. Thus, this study examined thematic eco-museum of France, and of Italy, the matrix of eco-museum for its unity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It was followed by the examination of successful domestic case. Finally, stone cultural park and Haenyeo museum, the representative eco-museums in Jeju were examined to figure out problems and possibilities. Eco-museum in Jeju must be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y must

have pride in their culture to communicate with spectators as cultural messengers as specialists of their own culture. For this purpose, local government must support and cooperate and constructs mutual win-win system economically by introducing networking with Jeju industrial institutions organically. If such becomes active, eco-musuem of Jeju may have tourism competitiveness as an integrated brand.

KMU